

재외동포용 교재
고 급(영어권)

한 국 어 I

(하)

대 한 민 국
교 육 인 적 자 원 부
국 제 교 육 진 흥 원

차 례

1. 생활과 수필	3
2. 판단하며 듣고 말하기	12
3. 우리속의 나	20
4. 편지	30
5. 한국의 김치	39
6. 자유라는 것	47
7. 기행문	58
8. 말의 값	66
9. 시조를 음미한다.....	74
10. 올바른 한국어	84
11. 조상들의 지혜	91
12. 실용문 세 편	98
13. 한국의 자랑	109
14. 여러 가지 말하기	118
15. 전화 예절	129
16.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	138
○ 알아 둘 말	147
○ 듣기 훈련을 위한 자료.....	163

제 1 과 생활과 수필



수필

은 희 : 선생님, 수필은 어떤 글인가요?

수필가 : 수필을 흔히 ‘붓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하지.

은 희 : 왜요?

수필가 :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느끼고 체험한 일들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일정한 형식이나 내용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쓰는 글이기 때문이지.

은 희 : 그럼, 아무렇게나 쓴 글이 수필이네요.

수필가 : 그렇지는 않지. 지은이의 생각이나 느낌이 짜임새
있게 잘 드러나야 수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은 희 : 수필에서는 주어가 ‘나’일 때가 많죠?

수필가 : 그래. 수필은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글이
기 때문에, 지은이의 생활 태도나 인생관이 그대로
반영되지. 그러므로 수필 속에 나타난 지은이의 생
각과 느낌은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때로는 독자
자신의 생활과 삶을 되돌아보게 하지.

은 희 : 그래서 좋은 수필을 읽고 나면 은은한 감동이 마음

속에 깊이 남는군요.

수필가 : 은희는 수필을 자주 읽나?

은 희 : 그리고 싶지만, 한국어 수필은 영어 수필보다 읽는 시간이 두세 배나 더 들어서…….

수필가 : 그래도 자주 읽도록 노력하기를 바라.

2

장난감

내 책상 속에는 십여 년 전에 텐센트 스토어에서 사 온, 구슬치기하는 마블 몇 개가 있다.

라일락,

너는 느릅나무 그늘지는 거리에도 피어 있다.

연과 마블을 파는 작은 가게가 있는.

나는 어려서 장난감 가게 주인을 부러워하였다. 지금도 막상 장사를 시작한다면 장난감 가게밖에 할 게 없는 것 같다. 물론 그 가게에서는 아이들에게 화상을 입게 하는 딱충은 팔지 않을 것이다.

장난감 가게는 우선 그 상품이 재미있다.

손님이 오지 않더라도 나 혼자 그것들을 가지고 놀 수 있



다. 그리고 장난감 가게에 오는 손님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다. 약방과는 다르다.

장난감 가게를 하게 되면 부대 사업으로 옆에다 장난감 서비스 센터를 내겠다. 바퀴 빠진 자동차도 고쳐 주고, 다리 부러진 인형도 고쳐 주고. 그러나 나의 어린 시절의 장난감들을 생각하면 수선료를 많이 받을 수 없다.

나는 어렸을 때 무서움을 잘 탔다. 그래서 늘 머리맡에다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주석으로 만든 용감한 병정들을 늘어놓고야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떠 보면, 나의 근위병

들은 다 제자리에서 꿈쩍도 않은 채 서 있었다.

나는 미국의 한 은퇴한 철도 회사 사장이 자기 집 마당에 다 기관차, 그리고 철교, 터널까지 갖춘 장치를 차려 놓고 이웃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차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현대 문명이 자랑하는 디젤 기관차도, 제트기도, 우주선도, 생각 하면 다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

언젠가 내가 죽어 묻힐 때가 오면, 내 책상 서랍 속에 있는 마블을 무덤에 넣어 주었으면 한다. 골동품 수집가는 청자 찻잔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요, 부잣집 부인이라도 진주 반지 하나 끼고 가지 못하지마는, 아무리 탐욕스런 세상이라 하여도 나의 마블은 그 속에 그대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피 천 득)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1. 본문 ①, ②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수필을 왜 ‘붓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합니까?

(2) 빈 곳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 수필은 독자에게 자신의 _____과 _____을 되돌아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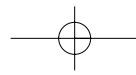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2. 본문 ②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나머지 다른 것과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를 골라 보세요.

- ① 딱총 ② 인형 ③ 약방 ④ 마블

(2) 지은이는 장난감 서비스 센터를 내면 수선료를 많이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어린 시절에 장난감들이 많았으므로
 ② 어린 시절의 장난감들은 고장이 잘 나므로
 ③ 어린 시절의 장난감들은 용감한 병정들이므로
 ④ 어린 시절의 장난감들이 생각나므로



Ⅱ. 회화 학습

1. 문형 연습

은희와 수필가가 ‘장난감’이란 수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수필가 : ‘장난감’을 읽고 느낀 점이 무엇이지?

은 희 :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이렇게 잘 쓰는 분이 부러워요.

수필가 : 글의 어느 부분이 가장 좋았지?

은 희 : 미국의 한 은퇴한 철도 회사 사장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 부러워요 → 부럽다 : to envy

· 좋았지 + ?(question marker) makes a question.

2. 대치 연습

(1) 네가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이 부럽다.
	노래를		하는	
	그림을		그리는	

(2) 생각해 보면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
	먹는 것에	
	똑같은 동물에	

· 생각해 보면 : When I think about it.

· 지나지 않는다 = ~일 뿐이다 : only

(3)	글	의 어느 부분이 가장 좋았지?
	공원	
	가사	

· 공원 : a park

· 가사 : words of a song

3. 문답 연습

(1) A : 수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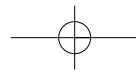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B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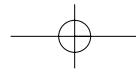
(2) A : ‘장난감’의 내용 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B : _____

A : 왜 그렇습니까?

B : _____





Ⅲ. 학습 문제

1. 다음 물음에 따라 해 보세요.

(1)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짧은 수필을 써 보세요.

_____	_____
(제목)	(이름)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자기가 쓴 수필과 파트너가 쓴 수필을 서로 바꾸어 읽으세요. 파트너의 수필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한 3가지 질문을 만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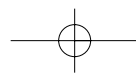
- 질문 1 _____
- 질문 2 _____
- 질문 3 _____

(3) 위의 활동이 끝난 후, 이 수필을 다른 파트너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위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세요.

- 답 1 _____
- 답 2 _____
- 답 3 _____

2. 다음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 나름대로 글로 다시 풀어 쓰고(rephrase), 글에 맞는 그림을 그려 보세요.

라일락, 너는 느릅나무 그늘지는 거리에도 피어 있다. 연과 마블을 파는 작은 가게가 있는.
• 글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그림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 2 과 판단하며 듣고 말하기

I 대통령 선거권

인철 : 나는 중학생에게도 대통령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중학생도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수호 : 난 반대야. 우리는 아직 어리고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그리고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른들과 똑같은 한 표를 갖는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기영 : 그렇지 않아. 어른 중에는 때로 옳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도 선거권이 있잖아. 똑똑한 중학생이 투표할 수 없다는 건 생각해 볼 문제야.

동욱 :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이고, 권리란 반드시 의무화 함께 행사해야 되는 거야. 어른들은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지만, 중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무런 의무가 없잖아. 중학생은 세금도 내지 않잖아. 그리고 중학생은 부모나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야. 그래서 난 중학생도 대통령 선거권을 갖는다는 의견에 반대야.

2 사회 봉사 활동

진희 : 난 교회에서 저소득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도왔어.

양주 : 주말을 그렇게 보냈으니 힘들었겠구나.

진희 : 조금. 그러나 즐거웠어. 너는 사회 봉사 활동을 하니?

양주 : 작년까지는 고아원에서 유치반 선생님을 도와 드렸는



데, 올해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진희 : 어떤 일인데?

양주 : 병원에서 일을 해야 할지, 학교에서 일을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 난 이 다음에 의사가 되고 싶으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병원은 집에서 너무 멀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매일매일 데려다 주시고 다시 데려오는 데 50분이나 걸려.

진희 : 학교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니?

양주 : 방과 후에 E.S.L을 가르치는 거야. 한국에서 금방 온 학생들의 회화 실력 향상을 돕는 거지. 그들을 도우면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가르치는 일을 해 본 적이 전혀 없어.

진희 : 생각을 좀 더 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1. 본문 [1]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수호는 인철의 의견에 “난 반대야.”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반대한다는 것인가요?

(2) 기영은 중학생도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아닌 것은?

- ① 중학생도 투표를 할 만큼 성숙하니까
- ② 똑똑한 중학생도 있으니까
- ③ 나이가 많아 정신력이 흐린 어른도 투표를 하니까
- ④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사람도 투표를 하니까

2. 본문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진희가 사회 봉사를 위해 한 일은?

(2) 양주가 다음 장소에서 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 병원 : _____

· 학교 : _____

(3) 진희는 양주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했습니까?

- ① 병원에서 일해라. ② 학교에서 일해라.
③ 더 생각해 보고 결정해라. ④ 잘 모르겠으니 빨리 선택해라.

II. 회화 학습

1. 문형 연습

인재 : 중학생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수호 : 대통령 후보들이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나눠 줄 거야. 그러면 많은 중학생들이 학用品을 많이 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테지. 왜냐 하면, 중학생은 아직 정확한 판단을 못하니까.

인재 : 난 반대야. 똑똑한 중학생은 그런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거야.

· 왜냐 하면 ~하니까 : the reason is because ~

(Although it appears to be an incomplete sentence, it is actually a complete sentence as it is.)

· ~ 않을 거야 : will not

(This expresses the speaker's opinion about something which will not happen in the future.)

2. 대치 연습

(1) 왜냐하면,	중학생은	아직	정확한 평가를	못하니까.
	우리는		운전을 잘	
	초보자는		기계 작동을	

(2)	나는	또다시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돌아오지	

(3) 다시	데려 오는 데	50분이나 걸려.
	걸어가는 데	
	만드는 데	

· 걸려, 걸리는 : (it) takes

· 걸리다 : is the main form of the verb.

· 걸려 : is a casual way of speaking.

3. 문답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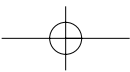
(1) A : 왜 중학생에게는 대통령 선거권이 없습니까?

B : _____

(2) A :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B : _____

(3) A : 진희는 주말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4) 양주가 병원이나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Ⅲ. 학습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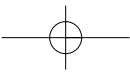
1. 다음 물음에 따라 해 보세요.

(1) ‘정신적으로 온전하다’에서 ‘온전하다’ 대신 쓸 수 없는 말은?

- ① 건전하다
- ② 온순하다
- ③ 완전하다
- ④ 이상이 없다

(2)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세요.

(3) 여러분은 중학생도 대통령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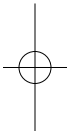


2. 다음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골라 짧은 수필을 써 보세요.

- 주제 1 : 나의 사회 봉사 활동
- 주제 2 :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의 정치와 정치인

(제목)

(이름)



제 3 과 우리 속의 나



I

카네기 홀에서의 합창

1950년대 초, 한국에서는 전쟁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그 고아들을 모아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다.

1950년대 후반, 이 합창단은 6·25 전쟁 때 함께 싸운 참

전국을 순회 공연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노래 부르는 이 어린이 합창단은 가는 곳마다 많은 찬사를 받았다.

어느 날, 이 합창단이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게 되었다. 공연장은 관람객으로 꽉 차 있었다. 합창은 앙코르를 세 번씩이나 받으며 박수 갈채 속에서 끝났다. 그런데 막이 내리고 어린이들이 퇴장할 때에 지휘자가 보니, 맨 앞 줄에 선 꼬마의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너, 걸음이 왜 그렇지?”

지휘자가 물었다.

“오줌을 쌌어요.”

그 꼬마는 얼굴이 빨개져서 지휘자를 보았다.

“아니, 뭐라고? 무대 위에다 오줌을 쌌단 말야?”

“네. 참으려고 발을 모았는데 저도 모르게…….”

꼬마는 고개를 푹 숙였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줌을 싸니? 오줌이 마려우면 살며시 빠져나가 화장실엘 갈 것이지,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지휘자는 몹시 당황하여 그 꼬마를 꾸짖었다. 그러나 꼬마가 조용히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화장실에 가면 알토 파트가 엉망이 되잖아요!”

지휘자는 어린 꼬마를 와락 껴안고 그만 울고 말았다.

2

‘현이의 연극’을 읽고

현이는 초등 학교 3학년 학생이다. 현이는 연극 ‘숲 속의 대장간’에서 풀잎 역을 맡았다. 그래서 현이는 매일 수업이 끝난 후 연습을 했고 휴일에도 학교에 나가 연습을 했다.

그렇게 오랜 연습을 끝내고 드디어 시민 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현이 엄마는 두 시까지 공연장으로 갔다. 자신이 출연자가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참으며 2부 순서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현이가 실수를 할까 봐 걱정이 되



기까지 했다.

선녀가 나간 후 대장간이 생기고, 참새와 까치 떼가 앞마당에 날아와서 춤을 추었다. 이것을 열심히 지켜보던 현이 엄마는 현이가 무슨 역을 맡았는지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현이를 기다리던 현이 엄마의 눈에 대장간 뒤에 있는 울창한 숲이 보였다. 그 숲 속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풀잎들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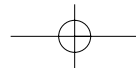
‘현이가 바로 저기, 저 많은 풀잎 중의 하나로 끼여 앉아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현이 엄마는 실망감과 표현하기 힘든 이상한 감정에 빠졌다. 대장간 앞에는 토끼와 포수도 나오고, 동네 여인과 대장간집 주인이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풀잎들은 계속 줄지어 붙어 앉아서, 양 손에 든 풀잎 그림판만 가끔 흔들 뿐이었다. 더군다나 양 손에 든 풀잎 그림판으로 얼굴을 계속 가리고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현이 엄마는 계속 현이만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연극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드디어 연극이 끝났다.

자신의 아이가 맡은 역이 보잘것없어 실망한 현이 엄마는, 연극이 끝난 후 현이를 찾으러 분장실로 갔다. 엄마를 먼저 알아본 현이가 엄마를 불렀다.

“엄마! 나 하는 것 보았어요?”

이럴 때, 보았다고 해야 할지, 못 보았다고 해야 할지, 망



설이던 현이 엄마는,

“응, 현이가 어느 쪽에 앉아 있었지?”

하고 되물었다. 현이가 자기를 못 보았다고 하면 실망할까 봐 걱정이 된 엄마는 아이의 눈치를 보았다. 뜻밖에 현이는

“엄마, 나 못 보았지? 내 뒤에 있는 참새가 앞으로 나가면 서 건드리는 바람에 내 모자가 벗겨져서, 엄마가 그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금방 집어 썼는데, 엄마 못 봤지?”

이렇게 말하는 현이를 보며 현이 엄마는 현이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현이의 연극’은 감동을 주는 글이다. 현이는 눈에 잘 띄 지 않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 고 열심히 연습을 했다. 그리고 공연을 할 때 최선을 다했 다. 이런 현이가 부럽다. 만일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면, 아 마 창피해서 어머니께 오시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1. 본문 [1]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한국 전쟁은 언제 일어나서 언제 끝났습니까?

(2) 한국의 고유 의상을 무엇이라 합니까?

(3) “오줌이 마려우면 화장실에 갈 것이지, 이런 망신이 어디 있 어?” 하고 지휘자가 야단칠 때, 꼬마는 무어라고 말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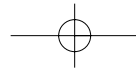
(4) 지휘자는 왜 꼬마를 껴안고 울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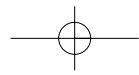
2. 본문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현이는 연극 연습을 얼마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2) 숲 속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풀잎들을 본 현이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① 현이가 무슨 역을 맡았는지 궁금했다.





② 자신이 출연자가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③ 두 시까지 공연장으로 가야 했다.

④ 현이의 역할에 크게 실망했다.

(3) 현이의 엄마는 왜 현이의 눈치를 보았습니까?

(4) ‘현이의 연극’을 읽은 이는 왜 현이가 부럽다고 했습니까?

Ⅱ. 회화 학습

1. 문형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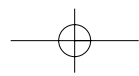
윤철 : 이 과의 제목이 왜 ‘우리 속의 나’지?

상민 : 글썄, 내가 우리들 중에 있다는 뜻이 아닐까?

윤철 : 그럴 것 같아. 또 다른 이유는 ‘나’라는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되니까, ‘나’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는 뜻이
겠지.

2. 대치 연습

(1) 글썄,	내가 우리들 중에	있다는 뜻이 아닐까?
	쉬운 일에 진리가	
	가까운 곳에 정답이	



(2)	‘나’라는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되지.
	시냇물이		강물이	
	티끌이		태산이	

(3)	공연장은	관람객으로	꽉 차 있었다.
	물병에	물이	
	선물이	상자 속에	

3. 문답 연습

A : 너는 왜 그것을 참지 못했니?

B : _____

A : 그래도 그렇지.

너는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잖아.

B : _____

A : 그래, 네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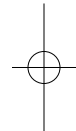
Ⅲ. 학습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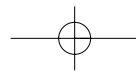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1. 본문 ㉠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1950년대’는 몇 년에서 몇 년 사이를 말합니까?

(2) 다음 중 6·25 참전국이 아닌 나라는?

① 미국 ② 영국 ③ 러시아 ④ 캐나다





(3) 다음 중 남녀 구분 없이 쓰이는 단어는?

- ① 어린이 ② 소년 ③ 소녀 ④ 사내

(4) 서로 관계가 있는 것끼리 짝을 지어 보세요.

- ① 전쟁 • 공연
② 박수 • 고아
③ 합창 • 갈채

(5) 다음 중 ‘맨’의 뜻이 다른 하나는?

- ① 맨 앞 ② 맨손 ③ 맨발 ④ 맨입

(6) 다음 중 합창 파트가 아닌 것은?

- ① 알토 ② 테너 ③ 소프라노 ④ 콘서트

(7) 다음 중 ‘엉망이다’가 잘못 쓰인 것은?

- ① 경기 내용이 엉망이다. ② 회의 진행이 엉망이다.
③ 도로가 엉망이다. ④ 하늘이 엉망이다.

(8) 지휘자가 꼬마를 껴안고 온 것은 꼬마의 어떤 점 때문이었습니까?

- ① 장난기 ② 책임감 ③ 차분함 ④ 유치함

2. 본문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연극과 관계 있는 단어는?

- ① 가위 ② 지휘자 ③ 무대 ④ 한국어

(2) ‘숲 속의 대장간’에서 ‘대장간’은 어떤 곳인가요?

(3) 다음 빈 곳에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세요.

<보기> • 말다(말았다) • 출연자들이 • 초조하게
• 지켜보던(지켜보시던) • 깨달은 • 줄지어
• 더군다나 • 드디어 • 망설이다
• 실망할까 봐 • 벗겨져서 • 충실했다

① 우리 아빠는 요즘 머리가 _____ 고민하신다.

② 그런 아빠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_____ 극장표를 사기로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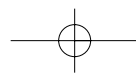
③ ‘잃어버린 세계’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기로 했다. _____ 그 날이 왔다.

④ 아빠께서 샤워를 하고 나오시기를 _____ 기다리고 있었다.

⑤ “아빠, 우리 오늘 영화보러 가요. 제가 표를 미리 샀어요.”
나를 _____ 아빠께서 말씀하셨다.

⑥ “네가 _____ 걱정되지만,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다.”

⑦ “_____ 아주 유명한데…….” 나는 실망하여 고개를 숙였다.



제 4 과 편지

Ⅰ 부모님께

— 미국에서 태어난 미나는 여름 방학 동안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집에 별일 없지요? 저는 점점 바빠집니다.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1주일이 넘었습니다. 이번에도 3급이에요.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합니다. E대에서는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1주일에 세 번밖에 안 합니다. 1주일에 4시간 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까 사진술을 배웠으면 해요.

내일 일본어 수업이 끝나면 대구로 갈 겁니다. 일요일이 할머니 생신이니까,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재미있게 파티를 할 겁니다. 할머니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나갔지만, 무엇을 살지 몰라서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선물 사기는 참으로 힘들어요. 대구에 가서 이모하고 같이 사야겠습니다.

친척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무척 좋아요. 주말에는 삼촌댁에서 잡니다. 오빠들하고 같이 영화 구경도 갑니다. 둘째 오빠는 저하고 나이도 제일 비슷하고, 유우머도 저하고 잘 통해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오빠들하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한국 노래를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사촌 오빠들을 만나 같이 노니까 재미있기는 하지만 집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한글로 편지 쓰겠습니다. 그러니 문법과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3년 10월 7일

서울에서

딸 미나 올림

2

나의 어린 아이들에게

— 이는 일제 강점기 때, 중국 상하이에 있던 대한 민국 임시 정부에서 쓴 김구 선생의 글이다. —



아비는 고향으로부터 수륙
몇천 리 떨어진 타국에서 이 글
을 쓰고 있다.

어린 너희를 옆에 놓고 말로
들려줄 수가 없어서, 그 동안
지난 일을 대략 기록하여 몇몇
친구들에게 부탁했다. 장래 너
희가 자라서 아비의 경력을 알
고 싶어할 때에 너희들에게 보

여 주라고 하였다. 너희가 아직 나이 어려서 직접 말로 하지
못함이 유감이지만, 어디 세상 일이 뜻과 같이 되느냐?

내 나이는 벌써 쉰셋이건만, 너희는 이제 겨우 열 살과 일
곱 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너희의 나이와 지식이 자랐을 때
에는 내 정신과 기력은 이미 쇠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몸은
원수 일본에게 선전 포고를 내리고 지금 사선에 있으니, 내
목숨을 어찌 믿어 너희가 자라서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날

을 기약하겠느냐? 그러므로 지금 이 글을 써 두는 것이다.

내가 나의 경력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김은 결코 너희에
게 나를 본받으라는 뜻은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
은 너희도 대한 민국의 한 국민이니, 동서와 고금의 많은 위
인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을 택하여 스승으로 섬기라는
것이다.

너희가 자라더라도 아비의 경력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이 책에 적은 것이 모두 오랜 일
이므로 잊어버린 것이 많으나, 하나도 보태거나 지어 넣은
것이 없음도 믿어 주기를 바란다.

대한 민국 11년 5월 3일

중국 상하이에서

아비

(김 구)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1. 본문 ㉠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미나가 서울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2) 미나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2. 본문 ㉡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김구 선생은 왜 자식들을 옆에 놓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까?

① 자식들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지식도 모자라서

② 김구 선생의 나이가 쉰셋이어서

③ 김구 선생의 정신과 기력이 이미 쇠해서

④ 김구 선생은 먼 타국에 있고, 자식들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2) 김구 선생이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3) 김구 선생이 쓴 책의 이름은?

① 백범일지

② 난중일기

③ 위인전

II. 회화 학습

1. 문형 연습

할머니 : 어떻게 이런 예쁜 선물을 샀니?

미 나 : 이모께서 선물 사는 것을 도와 주셨어요.

할머니 : 그랬구나.

미 나 :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서 제 자식들의 선물도 받으
셔야지요.

할머니 : 그래, 그래.

· 도와 주시다 : ‘도와 주다’의 높임말(honorific expression)

· 돕다 = 도와 주다(help with)

· 사셔서 = 사시 + 어서

→ ‘사시다’는 ‘살다’의 honorific expression

‘-어서’ : 이 문장에서는 동사에 붙어 ‘and’의 의미.

2. 대치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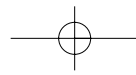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1) 이모께서 | 선물 | 사는 | 것을 도와 주셨어요.

삼촌께서 | | 고르는

할아버지께서 | | 포장하는

(2) 오래오래 사셔서, 제 자식들 | 의 | 선물도 | 받으세요.

을 | 가르쳐 | 주세요.



(3)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위인을 스승으로 섬기라는 것이다.
어머님을

3. 문답 연습

A : 너는 편지를 자주 쓰니?

B : _____

A : 얼마나 자주 쓰니?

B : _____

A : 나는 한국말로 쓰고 싶은데, 잘 안 돼.

B : _____

Ⅲ. 학습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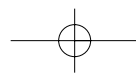
(1) ‘아비’는 ‘아버지’의 낮춤말입니다. ‘어머니’의 낮춤말은?

(2) ‘원셋’은 53의 고유어입니다. 68을 고유어로 쓰세요.

(3) ‘쇠하다’의 쓰임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① 국력이 쇠하다. ② 기운이 쇠하다.

③ 나이가 쇠하다. ④ 기억력이 쇠하다.



(4) 다음 말의 반대어를 쓰세요.

① 직접 :

② 고국 :

③ 보태다 :

④ 믿다 :

2. 다음 문장을 높임말로 고쳐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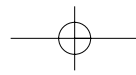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1) 할머니, 밥 먹어요.

(2) 엄마가 선생님한테 준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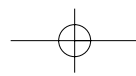
(3) 경진아, 선생님에게 오라고 해.

3. 다음 중 한 분께 편지를 써 보세요.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이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4. 위의 편지를 파트너에게 읽어 주세요.
5. 파트너의 편지 내용을 들은 후, 느꼈거나 생각한 바를 파트너에게 말해 보세요.



제 5 과 한국의 김치

Ⅰ 김치 샌드위치



미스터 브라운은 철호 반의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첫째 시간이 끝나자, 선생님께서 철호에게 앞으로 잠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철호는 눈이 휘둥그래지고 가슴이 방망

이질을 하는 것같이 두근거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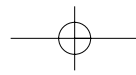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철호야,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의 첫마디 말씀을 듣고 철호는 “휴우”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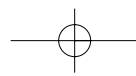
“어머니께 김치 담그는 방법을 적어 달라고 할 수 있겠니?”

“그건 무엇하시려고요?”

철호는 뜻밖의 부탁을 받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4. 위의 편지를 파트너에게 읽어 주세요.
5. 파트너의 편지 내용을 들은 후, 느꼈거나 생각한 바를 파트너에게 말해 보세요.



제 5 과 한국의 김치

Ⅰ 김치 샌드위치



미스터 브라운은 철호 반의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첫째 시간이 끝나자, 선생님께서 철호에게 앞으로 잠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철호는 눈이 휘둥그래지고 가슴이 방망

이질을 하는 것같이 두근거렸습니다.

“철호야,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의 첫마디 말씀을 듣고 철호는 “휴우”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께 김치 담그는 방법을 적어 달라고 할 수 있겠니?”

“그건 무엇하시려고요?”

철호는 뜻밖의 부탁을 받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내가 군인으로 한국에 있을 때 먹어 본 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어. 나도 한번 집에서 담가 보려고 그러지.”

그 날 저녁 철호네는 미스터 브라운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막 신이 나셨습니다.

“물론 김치 담그는 방법을 적어 드리고 말고.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담근 김치가 맛있게 익었으니, 브라운 선생님께 한 병 선사하는 것이 좋겠다.”

철호는 다음 날 아침 큰 병에 가득 담긴 김치를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오오, 땡큐, 땡큐우!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게 되었는데.”

미스터 브라운은 연방 싱글벙글하시며 조심스럽게 김치병을 안고 교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김치 샌드위치? 김치 샌드위치?”

철호는 이 말을 몇 번 되풀이하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꼴딱 군침을 삼켰습니다.

2

김치는 골드 메달이야

A :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뭘까?

B : 내 생각에는 불고기 같은데……

C : 나는 김치라고 생각해. 김치는 이제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거든.

B : 세계적이라고?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야?

C : 그것을 증명하지. 우선 올림픽 선수촌에서 선수들에게 김치를 제공한 점을 들 수 있어.

A : 또 다른 예를 들어 봐.

C : 항공사 중에서는 기내 음식으로 김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 미국 각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김치를 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김치를 살 수 있대.

B : 나는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맵고 냄새가 나기 때문이야. 그런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김치를 좋아할까?

C : 그 이유는 김치의 종류가 다양하고, 김치가 맛 좋은 건강 음식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야.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선물로 김치를 산다더라.

A : 너무 맵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거든.

B : 그렇다면, 김치는 한국 음식 중에서 골드 메달이네.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1. 본문 ㉠을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표를 하거나, 그 답을 쓰세요.

(1) 이 글의 종류는?

- () ① 동시 () ② 일기
() ③ 동화 () ④ 편지

(2) 선생님께서 나오라고 했을 때 철호는 왜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 () ① 칭찬을 들을까 봐서 () ② 심부름을 시키실까 봐서
() ③ 꾸지람을 들을까 봐서 () ④ 숙제를 많이 내주실까 봐서

(3) “내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데……”의 ‘……’에 맞는 말은 무엇 일까요?

- () ① 칭찬할 수 있을까? () ② 들어줄 수 있을까?
() ③ 화를 내지 않을까? () ④ 비용이 얼마나 들까?

(4) 철호는 왜 어리둥절하였나요?

(5) 철호가 선생님께 가져다 드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6) ‘미스터 브라운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는 무슨 뜻인
가요?

- () ①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 ② 꽃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였다.

() ③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꽃이 피었다.

() ④ 즐겁게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7)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만들어 먹게 되었다고 하셨나요?

(8) 철호는 무엇이 먹고 싶어서 군침을 삼켰나요?

2. 본문 ㉡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표를 하거나, 그 답을 쓰세요.

(1) C는 무엇이 세계적인 음식이라고 하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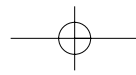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2)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예로 든 것들을
찾아서 ○표를 하세요.

- () ① 어떤 항공사의 비행기에서는 김치를 제공한다.
() ② 내 미국 친구도 김치를 좋아한다.
() ③ 올림픽 선수촌에서 김치를 제공한다.
() ④ 김치는 다양하고 어디서나 만들 수 있다.
() ⑤ 세계 여러 나라의 슈퍼마켓에서 김치를 판다.
() ⑥ 김치는 맛 좋은 건강 음식이다.

(3) B는 왜 김치를 싫어하나요?

(4) 한국 음식 중에서 골드 메달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5) 김치는 어떤 음식으로 세계에 알려졌나요?



Ⅱ. 회화 학습

1. 문형 연습

누나 : 외국인이 김치가 있느냐고 물어 봤어.

동생 : 그래서 어떻게 했어?

누나 : 김치병을 보여 주면서, 이것이 김치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김치를 담글 줄 아느냐고 묻더라.

동생 :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어?

누나 :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일은 자신이 있다고 말했지.

- 김치병 : jar of Kimchi
- 담글 (담그다) : make
- 자신이 있다 : be confident of

2. 대치 연습

(1) 김치 담그는 방법을 적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써
알려
설명해

(2) 그 방법을 써 드리고 말고.

적어
알려
그려
설명해

3. 문답 연습

A : 무슨 김치를 좋아합니까?

B : _____

A : 저도 _____

Ⅲ. 학습 문제

1.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 보세요.

- | | |
|----------|---------------|
| (1) 김치는 | ○ 세계적인 스포츠야. |
| (2) 석굴암은 | ○ 세계적인 음식이야. |
| (3) 태권도는 | ○ 세계적인 도시야. |
| (4) 서울은 | ○ 세계적인 글자야. |
| (5) 한글은 | ○ 세계적인 예술품이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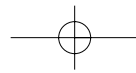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2. <보기>의 말을 써서, [예문]과 같은 형태로 짧은 글을 지으세요.

(1) 언제 누가 무엇을 담그다. (담그다 : to make)

〈보기〉 김치, 오이지, 식혜, 수정과, 고추장, 간장

→[예문] : 어제 어머님께서 김치를 담그셨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⑤ _____

(2) 언제 누가 어디 에 무엇 을 담그다. (담그다 : to soak)

〈보기〉 빨래, 콩, 쌀, 북어, 고사리

→[예문] :저녁 때 아버지께서 찬 물에 발을 담그신다.

⑥ _____

⑦ _____

⑧ _____

⑨ _____

⑩ _____

3. 다음 빈 자리에 여러분 나름대로 김치 자랑을 써 보세요.

제 6 과 자유라는 것

I

참새

주말 오후, 벨 우드 공원을 거니는데, 금발 소년이 움켜쥔 두 손을 불쑥 내민다.



“아저씨, 이거 퀴러(25센트)에 사세요.”

보니 참새다.

어릴 때의 장난기가 되
숫아 25센트 동전과 참새
를 바꿨다.

집에 돌아와 빈 새장에
넣고, 쌀이랑 식빵 부스러기, 배춧잎과 물을 주었다.

“자, 이제는 맘껏 먹고 잘 놀아라. 개구쟁이가 너를 괴롭힐
일은 없어졌으니 마음 놓고…….”

혼잣말을 하며 방긋 웃어 주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캐나다의 새들은 쌀을 먹을 줄 모르는 모양이다. 공원의
다람쥐와 비둘기들은 할 일 없이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나

⑤ _____

(2) 언제 누가 어디 에 무엇 을 담그다. (담그다 : to soak)

〈보기〉 빨래, 콩, 쌀, 북어, 고사리

→[예문] :저녁 때 아버지께서 찬 물에 발을 담그신다.

⑥ _____

⑦ _____

⑧ _____

⑨ _____

⑩ _____

3. 다음 빈 자리에 여러분 나름대로 김치 자랑을 써 보세요.

제 6 과 자유라는 것

I

참새

주말 오후, 벨 우드 공원을 거니는데, 금발 소년이 움켜쥔 두 손을 불쑥 내민다.



“아저씨, 이거 퀴러(25센트)에 사세요.”

보니 참새다.

어릴 때의 장난기가 되
숫아 25센트 동전과 참새
를 바꿨다.

집에 돌아와 빈 새장에
넣고, 쌀이랑 식빵 부스러기, 배춧잎과 물을 주었다.

“자, 이제는 맘껏 먹고 잘 놀아라. 개구쟁이가 너를 괴롭힐
일은 없어졌으니 마음 놓고…….”

혼잣말을 하며 방긋 웃어 주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캐나다의 새들은 쌀을 먹을 줄 모르는 모양이다. 공원의
다람쥐와 비둘기들은 할 일 없이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던져 주는 식빵 부스러기를 곧잘 뜯어 먹곤 하니
까, 이 참새도 식빵은 먹을 줄 알겠지…….

하지만 새장 속의 참새는 배추도, 물도, 식빵도 아랑곳 않
고, 푸드득 푸드득 창살에 부딪치며 빠져나오려고 기를 쓴
다. 시간이 흐르면 차차 버릇이 들어 보금자리로 여기겠지.

작은 새는 새총의 기습, 큰 새의 눈부라림을 벗어난 안전
한 곳, 먹고 자고 살 곳이 보장된 새장을 도리질하고, 파다
닥 날아서는 창살에 부딪치기를 되풀이한다.

그러다가 지치면 창 살 틈으로 머리를 내밀어, 비집고 나
오려고 안간힘을 한 시간 이상이나 멈추질 않는다.

“아하! 너도 호의호식보다 자유가 좋은가 보구나. 외톨이
의 편한 삶보다 부모 형제가 있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
는 나무 숲 등지가 애타게 그리운가 봐.”

콧등이 시큰해져서 새장 문을 열어 주었다.

그 조그만 날개를 힘껏 저어, 포르르 높고 푸른 하늘로 날
아가는 참새가 까만 점으로 작아지고…….

(이 석 현)

2 선택의 자유



A : 여기에 있는 주머니 세 개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하십
시오.

B : 이 주머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A : 첫째 주머니에는 일생 동안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크레디트 카드’. 둘째 주머니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셋째 주머니에는 일생 동안 보장되는 ‘건
강’이 들어 있어요.

C : 내게는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A : 꼭 하나씩만 선택해야 하지요.

C : 나는 건강을 주세요. 몸만 건강하다면, 돈은 쓸 만큼
벌 자신이 있으니까요.

B : 내게는 크레디트 카드를 주세요. 돈을 실컷 쓰고 싶어요. 여행도 하고, 물건도 사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아요?

D : 나는 자유를 선택하겠어요. 나는 참새가 먹을 것과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새장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A :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의 참뜻을 아는 것이에요.

D : 그런데 참새의 경우라면 자기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생명의 안전을 지키고, 남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A :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자유가 아니겠어요?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1. 본문 ㉠을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표를 하거나, 그 답을 쓰세요.

(1) 공원에서 만난 소년이 움켜쥔 두 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나요?

(2) 지은이는 새장의 참새를 보면서 무어라고 혼잣말을 하였나요?

(3) 새장 속의 참새는 어떻게 하려고 기를 썼나요?

(4) 참새가 새장에서 보장받는 것에는 △표를 하고, 참새가 바라보는 것에는 ○표를 하세요.

() ① 큰 새의 눈부라림을 벗어난 안전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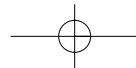
() ② 부모 형제가 있는 나무 숲 등지

() ③ 새총의 기습

() ④ 호의호식보다 자유

() ⑤ 먹고, 자고, 살 곳이 보장된 새장

(5) 무엇 때문에 지은이의 콧등이 시큰해졌나요? 맞는 답을 찾아



표를 하세요.

- () ① 참새가 새장 창살에 부딪치는 것이 가엾어서
 () ② 호의호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 ③ 참새의 자유를 얻으려는 마음에 감동하여서
 () ④ 참새를 놓아 주기가 슬퍼서

- (6) ‘그 조그만~ 까만 점으로 작아지고……’의 ‘……’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참새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 ② 참새는 부모와 친구를 찾아 갔다.
 () ③ 참새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 ④ 참새는 내 곁을 떠났다.

2. 본문 [2]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표를 하거나, 그 답을
 쓰세요.

- (1) 다음 주머니에서 각각 무엇이 들어 있나요?

첫째 : _____

둘째 : _____

셋째 : _____

- (2) C는 왜 건강을 택하였나요?

- (3) B는 왜 신용카드를 선택하였나요?

- (4) D는 왜 자유를 선택하였나요?

- (5) D는 새장을 떠난 참새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맞는
 답을 찾아 표를 하세요.

() ① 무엇이나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다.

() ② 자기 스스로 생명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 ③ 자기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한다.

() ④ 내 자유를 위한다면 남의 희생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 ⑤ 남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

Ⅱ. 회화 학습

1. 문형 연습

A : 네가 참새라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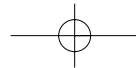
B : 나는 새장에서 호의호식을 할 거야.

A : 언제까지 새장에 갇혀 있겠어?

B : 그 생활이 싫증이 날 때까지.

A : 나는 새장 속에서 하루도 못 지낼 것 같아.

B : 내 말은 농담이지. 누군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고 했잖아.



- ~라면 : if
- 새장 : bird cage
- 호의호식 : wearing well and eating well(literal translation)
a luxurious life
- 갇혀(갇히다) : to cage
- 싫증나다 : get tired of

2. 대치 연습

(1) 호의호식보다 자유가 더 좋은가 보다.
친구가
부모가
고향이
고국이

(2) 안간힘을 멈추질 않는다.
노력을
운동을
연구를

(3) 꼭 한 책만 선택하십시오.
가지
사람
장소

(4) 새장에서 빠져나오려고 기를 쓴다.
달아나려고
날아가려고
벗어나려고

(5) 돈을 쓸 만큼 별 자신이 있다.
나눌
계획한

(6) 생명의 안전이 보장된다.
나라의
가족의

3. 문답 연습

A : 자유는 왜 중요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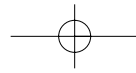
B : _____

A : 넌 네 자유가 침해됐다고 느낀 적이 있니?

B : _____

A : 왜 그렇게 느꼈니?

B : _____



Ⅲ. 학습 문제

[학습 활동 절차 안내]

1. 수필 쓰기
2. 각 문장에 번호 붙이기
3. 알맞은 대화문을 넣고 싶은 곳에 넣기
(대화를 섞으면 글의 느낌이 달라진다.)

1. 동물의 새끼를 키워 본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키웠습니까? 어떤 동물을 키웠습니까? 그 동물을 키우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동물은 어떻게 느끼며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위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각자 동물을 기른 체험을 글로 써 보세요.

(제목)

(이름)

2. 각자가 쓴 위의 글을 읽고 다음 <보기>와 같이 각 문장에 번호를 쓰세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알맞은 대화문을 써 넣으세요.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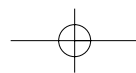
(1) 문장에 번호 붙이기

① 나는 오랫동안 금붕어를 갖고 싶어했다. ②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가 금붕어를 돌볼 시간에 좀더 유익한 일들을 하라고 하시면서, 1년이 넘도록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③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난 내 방에 놓여 있는 어항을 보고 깜짝 놀랐다. ④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어항 속에 있는 한 마리의 붕어는 장님이었다.

(2) 대화문 써 넣기

어디에?	어떤 대화문을?
①과 ②의 문장 사이	“엄마, 전 금붕어가 갖고 싶어요. 제 생일 선물로 금붕어를 사 주세요.”
②와 ③의 문장 사이	“금붕어 돌보기가 얼마나 힘들고 시간 낭비인 줄 아니? 그 시간에 바이올린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프랑스어 공부나 해.”

3. 1번의 글에 2번의 대화문을 합쳐 짧은 이야기를 다시 써 보세요.
(발표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써서 선생님께 제출하세요.)



제 7 과 기행문

I

중국 대륙을 여행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8학년 이상의 학생 20명과 선생님 세 분, 학부모 여섯 분이 14일 간의 중국 여행을 하였다.

우리 여행단이 방문한 곳은 상해, 남경, 서안, 천진, 북경의 다섯 도시였다. 어디를 가나 중국의 긴 역사를 설명하는 통에 내 친구들은 좀 질린 것 같았다.

나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 말과 자기의 문화를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중국계 외국인으로서 아무리 영어를 잘 해도, 자기네 나라 말을 못하면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 중국 사람을 닮은 내가 중국 말을 했을 때,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덮어 놓고 깔보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잘 한다고 하니까, 그 때서야 ‘친구 하자.’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같이 여행한 우리 학교 친구 중에 중국계 미국인 학생이 세 명 있었다. 그 중의 둘은 영어밖에 할 줄 몰라서, 여행하는 동안 점점 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거기서 사는 한국 사람들을 만났다.



“너는 한국보다 미국에서 사는 것이 더 좋으냐?”

고 그들이 물었다. 그래서

“나는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국 생활을 잘 몰라요.”

하고 대답했다.

내가 그분들과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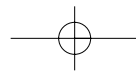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나는 친구들의 반응이 꽤 반가웠다.

정말 엉뚱하게도 내가 한국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중국에 가서 배웠다.

아직도, 토요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기는 싫다. 그러나 여행 전 보다는 싫지 않아서 다행이다.

여행을 한다는 것은 풍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머리로 생각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 흥 경)



2

니이스의 꽃 시장

니이스의 명물의 하나가 유명한 카네이션 꽃 시장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이 꽃 시장은 가관이다. 열두 시가 가까워지니까, 난데없이 교통 순경들이 이 구석 저 구석서 쏟아져 나와 교통을 중단시켰다. 무슨 사고가 났나보다고 우리는 깜짝 놀랐다. 열두 시를 대기해서 순경들이 호각을 불고, 호각을 신호로 삼시간에 꽃수레, 꽃 자동차가 모여 들어 옛 마을 광장이 꽃 시장을 이루었다. 꽃은 주로 희고 빨간 카네이션의 다발이었다. 열두 송이 한 다발이 처음에는 500 내지 600 프랑에서 시작했는데, 불과 두어 시간이면 끝나는 파장 판에는 100 내지 200 프랑까지 떨어진다고 한다. 꽃들은 반드시 그날 아침에 꺾은 것이어야 시장에 나올 수 있고, 또 못 다 팔린 것은 파리를 비롯한 여러 도시로 수송된다고 한다. 물론, 파리의 일류 꽃가게에서는 이 꽃 시장을 거치지 않고 화원에서 바로 비행기로 수송되기도 할 것이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아무리 원산지라 해도 언제나 결코 싸지는 않은 꽃 시세인데——은 무척 꽃을 사랑하는 듯, 파리서고 어디서고 한 아름씩 안고 다니는 것을 본다. 꽃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작업이냐.

(김 향 안)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1. 본문 ㉠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중국 여행단이 방문한 도시 이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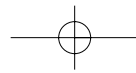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2) 지은이와 같이 여행한 두 명의 중국계 미국인 학생들은, 여행을 하는 동안 무엇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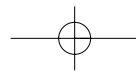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 ① 중국 사람을 닮았는데 중국 말을 못했을 때 덮어놓고 깔보는 것을
- ② 동양 사람이 영어를 잘 하는 것을
- ③ 영어밖에 못하는 것을
- ④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3) 지은이는 중국에 가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4) 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

여행을 한다는 것은 _____ 아니라 이렇게
_____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2. 본문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니이스의 명물의 하나는 무엇입니까?

(2) 누가 어떤 신호를 하면 순식간에 꽃 시장을 이룹니까?

(3) 언제 꽃 값이 떨어집니까?

(4) 언제 꺾은 꽃이라야 꽃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까?

(5) 이 기행문은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알려 줍니까?

II. 회화 학습

1. 문형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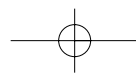
은주 : 나는 이번 휴가 때 한국에 갈 거야. 너는 뭘 할 거니?

진형 : 나는 아직 몰라. 우리 부모님은 바쁘셔서 여행을 못 하셔.

은주 : 그렇구나. 우리 가족과 함께 갈 수 없을까?

진형 :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가 어머니의 허락을 받도록 할게.

· 그거 좋은 생각이다. : That's a good idea.



2. 대치 연습

(1) 이번 휴가 때 한국에 갈 거야.

명절 때

겨울에

(2) 내가 (나의) 어머니의 허락을 받도록 할게.

· (나의) is omitted because it is understood between two speakers unlike the usage of English language. In fact it is better not to use '나의' at all in this context.

(3) 내가 고모님의 허락을 받도록 할게.

삼촌의

· '할게' : has a meaning of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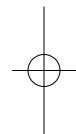
· 먹을게 : I'll eat.

3. 문답 연습

(1) 여행의 중요성을 써 보세요.

(2) 학생은 언제 한국에 다녀왔습니까?

(3) 그 곳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4) 언제, 왜 다시 한국에 가려고 합니까?

(5) 여행을 다녀온 후에 쓰는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Ⅲ. 학습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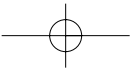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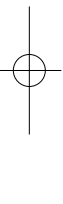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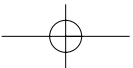
1. ‘중국의 긴 역사를 설명하는 통에 내 친구들은 좀 질린 것 같았다.’에서 ‘질린 것’과 비슷한 말은?

- (1) get rid of
- (2) get sick of
- (3) get kicked in
- (4) be amazed

2.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짧은 글을 지으세요.

- (1) 방문하다 : _____
- (2) 취급하다 : _____
- (3) 깔보다 : _____
- (4) 흥을 보다 : _____
- (5) 서투르다 : _____

3.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에 대한 글을 짧게 써 보세요.(언제 어디로
의 여행이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왜 이 여행이 기억에
남습니까?)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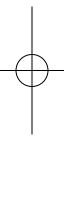
(이름)

4. 파트너의 기행문을 읽어 보고, 다음을 써 보세요.

(1) 간단한 줄거리 : _____

(2) 재미있는 문장은?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제 8 과 말의 값

I 값진 말



철호는 첫 번 SAT를 치르고 나서 자신을 잃었다. 그는 이번엔 평소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 바본가 봐!”

철호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피했다.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혼자서 멀리멀리가 버리고 싶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철호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그들은 가장 값진 말로 자신을 잃은 그를 격려하고자 노력하였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2 말 한 마디에 천 냥

“말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무슨 뜻이지요? 좀 막연한 질문이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말하지요.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할 때는 말 한 마디의 값이 얼마일까요?”

“이 경우의 한 마디는 ‘천 냥’이지요.”

“천 냥을 천 달러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비싸군요.”

“도대체, 그런 말이란 무엇일까요?”



3

은과 금

“다음 문제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인데, 이 경우 말의 값은 얼마일까요?”

“ ‘웅변’은 거침 없이 말을 잘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겨우 ‘은’의 가치밖에 없나요?”

“나도 이해할 수 없어. ‘침묵’은 아무 말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인데 ‘금’이라니요?”

“아, 알았다! 때로는 잘 하는 말보다, 입을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뜻이지요?”

“옳은 해석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경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기도 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그럼, 말을 듣는 상대방, 때, 장소, 상황에 따라 알맞은 말을 해야만 값을 올릴 수 있겠군요.”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1. 본문 ㉠을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표를 하거나 그 답을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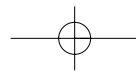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1) 철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들을 찾아서 ○표를 하세요.

- () ① 철호야, 그까짓 것 다 잊어버려.
- () ② 다음 번에 잘 하면 돼.
- () ③ SAT 성적대로 행복의 순서가 정해지나?
- () ④ 다 같이 산이나 바다로 놀러 가자.
- () ⑤ 이번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 봐라.
- () ⑥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기억해라.
- () ⑦ SAT는 몇 번의 기회가 있다.
- () ⑧ ‘내 자신이 최선을 다 했나?’ 생각해 보자.
- () ⑨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하였니?
- () ⑩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였니?

(2) 여러분은 철호에게 어떤 도움의 말을 해 주고 싶습니까?

(3) 철호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였습니까?

(4) 실망한 철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본문 ②와 ③을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표를 하거나, 그 답을 쓰세요.

(1) ‘천 냥’과 같은 값어치는 무엇입니까?

- () ① 천 냥의 말 () ② 천 냥의 빛
() ③ 한 마디의 말 () ④ 천 마디의 말

(2) ‘빛을 갚는다.’는 뜻은?

- () ① 빛을 갚지 않아도 좋다.
() ② 말로써 빛을 갚은 것과 같다.
() ③ 말을 잘 했으니까 빛이 없어졌다.
() ④ 빛을 갚지 못하면 말을 잘 해라.

(3) 말을 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 () ① 장소 () ② 때 () ③ 상대방
() ④ 사투리 () ⑤ 존대어 () ⑥ 상황

(4)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일 때는 ○표를 하고, ‘침묵이 은이고, 웅변이 금’이라고 생각할 때는 △표를 하세요.

- () ①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욕할 때
() ②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있을 때
() ③ 부모님이 오해로 꾸지람하실 때
() ④ 내 자신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
() ⑤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

Ⅱ. 회화 학습

1. 문형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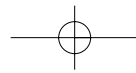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A :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는데…….
B : 파란 하늘을 쳐다 봐. 이런 날은 즐거운 일이 있겠지.
A : 네 말은 바로 내 아스피린이야.
B : 무슨 뜻이야?
A : 내 머리를 상쾌하게 하니까.

2. 대치 연습

(1) 철호는 자기	자신에 SAT 성적에 친구들의 행동에 기계 고장에	대하여 실망하였다.
------------	--------------------------------------	------------

(2) 그에게	용기를 희망을 기회를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	--------------------------	------------

(3) 값진	말이 물건이 친구가 기회가	있다.
--------	-------------------------	-----



(4) 도대체 그런	말이란	무엇일까?
	기회란	
	지혜란	
	물건이란	

3. 문답 연습

A : 말의 값은 얼마입니까?
B : _____
A :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B : _____
A : 아. 그렇군요. 나도 동의합니다.

Ⅲ. 학습 문제

1. 여러분은 SAT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SAT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면 대학 진학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 여쭙 보세요.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보기>와 같이 간단하게 요약하여 대화로 만드세요.

<보기>
학 생 : 선생님, SAT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선생님 : ‘Standard Achievement Test’의 약자란다.

- 2. 위의 인터뷰 내용을 파트너와 함께 읽으세요.
- 3. 여러 번 읽은 후, 교실 앞에서 보지 않고 role play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세요.
- 4. Role play를 해 보세요.
- 5. 말을 잘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6. 사정에 따라 말을 가려 써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9 과 시조를 음미한다

I 말(Chit chat)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진수 : 할아버지, 방금 읽으신 것이 뭐예요?

할아버지 : 이것은 한국의 전통시로, ‘시조’라고 부른다.

진수 :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은 ‘horse’인가요?

할아버지 : 아니, 여기의 ‘말’은 ‘speech’ 혹은 ‘words’라는 뜻이지.

진수 : 저는 이 시조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 첫째 줄의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을 것이’에서 모르는 것이 무엇이나?

진수 : ‘남의 말을 말을 것이’라는 구절이 너무 어려워요.

할아버지 : 그래. 우리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자. 먼저 ‘남의 말’이란 뜻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진수 : 그러면 ‘말을 것이’는 무슨 뜻이죠?

할아버지 : 천천히 하나씩 하자. 네가 서두르는구나.

진수 : 모르니까 답답해요.

할아버지 :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지 않느냐?

아까 말했듯이 ‘남의 말’은 ‘남의 흥을 보는 말’이라는 뜻이고, ‘말을 것이’는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다.

진수 : 아아, 알겠어요. ‘남의 흥을 보는 것이 재미있더라도 그러지 말아라.’라는 뜻이죠?

할아버지 : 그렇지. 진수가 빨리 알아들었구나.

진수 : 그 다음은요?

할아버지 : ‘남’은 ‘다른 사람’이고 ‘내’는 ‘나’지.

둘째 줄은 왜 남에 대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나타냈지.

진수 : 왜요?

할아버지 : 진수 친구 한 명이 네 흉을 보면, 진수 너도 그 아이의 흉을 보지 않겠니?

진수 : 볼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내 친구 민기가 내 수학 점수가 70점이라고 흉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민기 너는 난쟁이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 : 그것 보라. 민기가 네 흉을 먼저 봤으니, 너도 나쁜 말을 했구나. 그것이 바로 ‘남에 대한 말을 내가 하면, 남도 나에게 대한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다.

진수 : 셋째 줄의 ‘말 말을까 하노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할아버지 : 그렇지. ‘말로써 말 많으니’라는 뜻은 ‘말 때문에 말이 많아지니’라는 뜻이다.

진수 : 그러니까, 말 때문에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귀찮고 시끄럽겠네요.

할아버지 :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러니 남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진수 : 내일 학교에 가서 민기한테 사과해야겠어요.

2

까마귀와 백로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은소냐.
겉 희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 이 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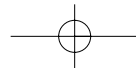
미현 : 현정아, 나 오늘 학교에서 시조를 배웠다.

현정 : 한번 외워 봐. 내가 잘 들을게.

미현 :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현정 : ‘검다 하고’가 무슨 뜻이야?

미현 : ‘검다 하고’는 ‘검다는 이유 때문에’라는 뜻이야. 까마귀는 색깔이 검정색이잖아? 하얀 백로가 색깔이 검



은 까마귀를 보고 비웃었나 봐.

현정 : 그러니까 ‘색깔이 검은 걸 비웃지 말아라.’ 그런 뜻
이구나.

미현 : 응, 맞아. 둘째 줄은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은소냐.’

현정 : ‘겉이 검다고 하여 속까지 검은 것 같으냐.’ 그런 뜻
이지?

미현 : 그래, 까마귀의 겉이 검어도 마음속은 오히려 더 맑
을 수 있다는 거지.

현정 : 백로는 겉이 하얗더라도 속 마음이 시커멀 수 있지
않아?

미현 : 그래, 겉과 속은 항상 똑같은 게 아니잖아. 셋째 줄은
‘겉 희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야.

현정 : 이 시조를 쓴 이는 백로가 비록 겉 색깔이 하얗더라
도 마음씨가 안 좋다고 생각한 거구나.

미현 : 그래, 그래. 아마 백로는 어떤 마음이 나쁜 사람을 말
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의 겉모양과 속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

현정 : 나쁜 사람이구나!

미현 : 내 생각엔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사
람이더라도 어떤 때는 착하고 어떤 때는 나쁜 것 같은
데…….

현정 : 사람의 겉과 속이 항상 똑같은 수는 없을까?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1. 본문 ㉠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할아버지는 무엇을 읽었습니까?

(2) 이 시조에서 ‘말’은 무엇입니까?

① 조랑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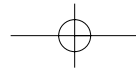
②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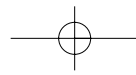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③ 이야기

④ 소설

(3) 지은이는 왜 남에 대해서 흥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까?

(4) 이 시조의 의미를 적어 보세요.





2. 본문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검다 하고’는 무슨 뜻인가요?

(2)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은소냐.’는 무슨 뜻입니까?

- ① 겉이 검은니까 속도 검다.
- ② 겉이 하얀니까 속도 하얗다.
- ③ 겉이 하얗더라도 속은 검다.
- ④ 겉이 검어도 속까지 검은 것은 아니다.

(3) 다음 글을 완성하세요.

지은이는 겉은 하얗고 속이 시커먼 동물은 단지 _____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였다.

Ⅱ. 회화 학습

진수 : ‘시조’는 ‘시’와 어떻게 다를까?

현정 : 시와 시조는 그 형식이 다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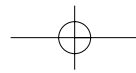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진수 : 시는 ‘시조’보다 형식이 더 자유로운 것 같아.

미현 : 시조는 한국 전통시로서 형식을 중요시 해. 옛날 시조는
말이 현대어하고 다르지만, 그 뜻은 우리들이 노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현정 : 난,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라는 시조가 좋아.

진수 : 왜?

현정 :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좋아.



1. 문형 연습

- ‘시’나 ‘시조’의 내용은 자유니까 형식이 다르겠지 : Since the content of a poem and a shijo is the same, only the format will be different.
- ‘~겠지.’ : in this context, means a guess.
- 더 : more(comparative)
- ~지만 : although

2. 대치 연습

- 시와 시조는

형식이
운율이
분위기가

 다르지.

- | |
|-----|
| 형식이 |
| 모양이 |
| 크기가 |
| 머리가 |

 더

자유로운
예쁜
큰
아픈

 것 같아.

- | |
|--------|
| 현대어하고 |
| 태어난 곳은 |

말이
전혀

 다르지만 쉽게

이해할
통할

 수 있어.

- | |
|-----|
| 까마귀 |
| 거북이 |

검다
느리다

 하고

백로야
토끼야

 웃지 마라.

3. 문답 연습

A : 시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

B : _____

A : 왜냐 하면, 말이 어려워서.

B : _____

Ⅲ. 학습 문제

1.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알고 계신 시조를 여쭙어 보고, 여기에 적어 보세요.

2. 다음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조를 지어 보세요.

- 주제 1 : 해야 할 일을 미루면 나중에 더 힘들다.
- 주제 2 :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
- 주제 3 : 자유

3. 여러분이 지은 시조를 파트너에게 큰 소리로 읽어 주세요. 그리고 그의 의견을 들어 보세요.

4. 여러분 파트너의 시조를 다시 한 번 듣고 다음을 작성해 보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세요.)

(1) 나의 파트너(이름) : _____

(2) 시조의 제목 : _____

(3) 주제 : _____

(4)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 : _____

5. 나의 느낌 :

제 10 과 올바른 한국어

I 표준어

우리가 제 고장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은 사투리로 말을 주고받을 때면 친근감이나 일체감을 더 가지게 된다.

가령, 경상도 사람과 제주도 사람이 만나서 각기 다른 자기네 사투리로 말을 주고받는다 하고 하자. 그렇게 되면,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 말이 섞일 수도 있고, 말씨가 달라서 아무래도 서로 조금은 서먹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한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올바른 발음의 표준어를 쓰는 것이, 국민 전체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바람직한 길임을 알 수 있다. 또, 순화된 표준어의 사용은 국민의 정서 순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대체로 그 나라의 수도가 있는 지방의 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생각해 보자. 한 나라의 수도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교통 등 모든 면에서 중심지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사람들이 자주 오가므로, 수도의 말은 보급이 잘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양 있는 각계 각층의 사람에 의해서 갖고 닦인 세

련된 말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우리가 다같이 표준어로 올바른 말을 생활을 한다면, 온 나라 사람이 하나로 뭉쳐 문화 국민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올바른 발음

사람에 따라, 또는 지방에 따라 ‘모래’를 ‘모레’로, ‘어른’을 ‘으른’으로, ‘의사’를 ‘으사’ 또는 ‘이사’로, ‘되었어’를 ‘됐어’로, ‘고추’를 ‘꼬추’로 잘못 발음하는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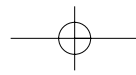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또, 우리말에는 여러 가지 발음 현상이 있다. 길이의 구별이 있는데 그에 따라 말의 뜻이 달라진다.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말도 있는데, 이것을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긴 소리를 짧은 소리로, 짧은 소리를 긴 소리로 잘못 발음하고,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된소리를 예사소리로 잘못 발음한다.

“눈에 눈:이 들어가면 눈물인가 눈:물인가?”

여기서 :표는 긴 소리 표시이다.

“잠자리(곤충 이름)와 잠차리(잠을 자는 자리)”에서 ·표

지 않으면 뜻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올바른 한국어라고 할 수 없다.

긴 소리와 사잇소리 현상에서 알아 둘 일이 있다.

첫째로, ‘제 할 일을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 제:가 할 일을 알아서 하는 사람’에서처럼, 같은 ‘제’라도 경우에 따라 길게도 짧게도 발음되는 일이 있다.

둘째로, ‘숨:’과 ‘목숨’, ‘돈:’과 ‘잔돈’, ‘답:다’와 ‘무답다’, ‘뺨:다’와 ‘짓뺨다’, ‘명:령’과 ‘생명’, ‘성:질’과 ‘여성’에서처럼, 첫머리에서 길던 소리도 뒤에 놓이면 짧게 발음되는 것이 있다.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단일 언어를 써 온 문화 민족이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말과 글을 잃을 뻔했던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어를 사랑하고 문화적인 전통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 일본어의 찌꺼기나 서구에서 들어온 외국어를 우리말에 마구 섞어 쓰는 일을 삼가고, 품위 있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올바른 발음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 광 우)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1. 본문 [1]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제 고장 사람들끼리 사투리로 말을 주고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2) 각기 다른 지방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 사투리로 말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3) 서울 지방의 말을 표준어로 삼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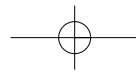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2. 본문 [2]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 안의 뜻을 살피 올바른 발음으로 고쳐 쓰세요.

- ① 모레(잘게 부서진 돌 부스러기) ② 으른(다 큰 사람)
 ③ 으사(병을 고치는 사람) ④ 꼬추(몹시 매운 열매)

(2) 짧게 발음되는 단어가 아닌 것은?

- ① 목숨 ② 답다
 ③ 짓뺨다 ④ 여성



(3) 올바른 한국어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Ⅱ. 회화 학습

은주 : 뉴욕과 휴스턴의 영어 발음이 다른데 한국도 그런가요?
고모 : 미국에서처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투리가 있지.
은주 :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주가 다르면 발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하지만 한국은 땅이 좁은데 왜 발음이 다르죠?
고모 : 한국에는 큰 산과 강들이 있고, 오랫동안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지. 그래서 여행하는 게 어려웠어. 이렇게 다른 지방 사람들과 교류가 별로 없었으니까 사투리가 많이 생겼지.

1. 문형 연습

- 그런가요? : Is it the same?
- 그래도 : even then
- ‘있었고’ : is the past form of ‘있고’.

2. 대치 연습

(1)	땅	이	넓	으니까	발음	이 다르다는 것을 알겠어요.
	물		깊		식물	
	산		높		산소의 양	

(2) 그래서	여행하는	게 어려웠어.
	연설하는	
	도망가는	

3. 문답 연습

진희 : 왜 표준말을 쓰는 것이 중요하니?

영수 : _____

진희 : ‘올바른 한국어’를 공부하고도 잘 모르겠어?

영수 : _____

진희 : 그럼 이 단원의 글을 다시 읽고 생각해 봐.

영수 : _____

Ⅲ. 학습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를 쓰세요.

(2) ‘시가’는 다음 4가지로 발음할 수 있는데, 각 발음에 따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 | | |
|-----------------------|---------------------|
| ① 시가(songs and poems) | ② 시:가(street) |
| ③ 시까(current price) | ④ 시:까(market price) |

2.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1) 긴 소리와 짧은 소리 (:는 긴 소리)

- | | |
|-----------------------------|---------------------------|
| ① ┌말:을 해 보아라.
└말을 타 보아라. | ② ┌꿀을 만드는 벌:
└벌을 받는 학생 |
| ③ ┌벌:이 반짝인다.
└벌 뜻이 없다. | ④ ┌발:을 걷어라.
└발이 아프다. |

(2) 사잇소리가 나는 경우의 예와 아닌 경우 (·는 사잇소리)

- | | |
|--------------|----------------|
| ① ┌물고기
└· | ② ┌바람 소리
└· |
| ┌· | ┌· |
| └· | └· |

제 11 과 조상들의 지혜

Ⅰ 장독대



(2) ‘시가’는 다음 4가지로 발음할 수 있는데, 각 발음에 따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 | | |
|-----------------------|---------------------|
| ① 시가(songs and poems) | ② 시:가(street) |
| ③ 시까(current price) | ④ 시:까(market price) |

2.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1) 긴 소리와 짧은 소리 (:는 긴 소리)

- | | |
|-----------------------------|---------------------------|
| ① ┌말:을 해 보아라.
└말을 타 보아라. | ② ┌꿀을 만드는 벌:
└벌을 받는 학생 |
| ③ ┌벌:이 반짝인다.
└벌 뜻이 없다. | ④ ┌발:을 걷어라.
└발이 아프다. |

(2) 사잇소리가 나는 경우의 예와 아닌 경우 (·는 사잇소리)

- | | |
|--------------|----------------|
| ① ┌물고기
└· | ② ┌바람 소리
└· |
| ┌· | ┌· |
| └· | └· |

제 11 과 조상들의 지혜

Ⅰ 장독대



2

질그릇

지금 미국의 우리 집에는 일곱 개의 질그릇이 있다. 하나는 조선 시대 말기의 중간 크기 항아리이고, 그 다음 작은 크기의 것은 한국 그로서리에 갔다가 발견한 것으로 지금은 우리 집 우산꽃이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그보다 더 작은 것들로 친정에 다니러 갔을 때 가져왔다. 몇 번이나 이사를 할 때마다 그 수요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우리 집 어딘가에 장독대를 남기고 싶어서 질그릇 몇 개를 늘어놓고 있다.

질그릇에 대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며칠 전 어떤 책을 뒤적이다가 한국의 장독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의 발효 음식, 즉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등의 음식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장독의 덕이었다니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또 한 가지는, 질그릇 항아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물을 며칠씩 독항아리에 담아 두어도 썩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어렸을 때 큰댁에 놀러 가면, 일하는 처녀가 물을 길어 날라다 부엌의 양 귀퉁이에 있는 두 항아리를 채우곤 했다. 그 처녀는 아침 나절 전부를 그 일을 위해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그 일이 끝이 나야 나하고 좀 놀아 줄 텐데, 그렇게 오랜 시

간을 기다리다 보면, 어떤 때는 언제 다 채워지느냐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항아리 속을 들여다 보곤 하던 기억도 난다. 그렇게 큰 항아리의 물을 매일 다 쓰고, 매일 새 것으로 갈아 채우고…….

그러니 그 항아리 물이 쉽게 썩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에 수궁이 간다.

또 아주 흥미있게 만들어진 항아리를 보았기에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이야기한다. 아마도 어떤 짓궂고 발명심이 많은 토장이가, 마누라의 살림을 도와 주고 싶어 만들어 냈던 게 아닌가 싶은 김치 항아리 이야기다.

여름에 시원하고 시지 않는 김치를 먹기 위해서, 어른들이 큰 물독에 김치 항아리를 담그고 자주 찬물로 갈아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벌레가 항아리를 타고 올라가 김치 항아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주기도 한다. 그 항아리를 날개 달린 옹기라고 했다. 항아리 바깥 쪽에 여러 개의 옹기가 더 붙어 있는데, 물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여간 흥미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선조들의 슬기로움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숙 녀)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1. 본문 ㉠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시 ‘장독대’에는 어떤 종류의 항아리들이 있습니까?

(2) 그 항아리들은 무엇이라고 소근댁니까?

- ① 할머니 댁 뜰에는 장독대가 있다.
- ② 많은 항아리들이 나란히 서 있다.
- ③ 따뜻한 햇볕을 쬔다.
- ④ 우리가 있으니까 한국 음식 맛이 좋다.

2. 본문 ㉡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지은이는 왜 질그릇을 집에 늘어놓고 있습니까?

(2) 이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 ① 한국이 발효 음식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장독의 덕 때문이다.
- ② 질그릇 항아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그 안의 물이나 음식이 쉽게 썩지 않는다.

- ③ 어떤 한국 사람들은 큰 항아리에 작은 김치 항아리를 넣고 자주 시원한 물로 갈아주었다.
- ④ 일상 생활에서 선조의 슬기로움을 깨달아도 별다른 느낌이 없다.

II. 회화 학습

1. 문형 연습

은미 : 오늘 책을 보다가 한국의 발효 음식이 한국 흙의 덕이라는 걸 알아냈어.

한수 : 그래? 나도 몰랐어. 그런데 장독이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어?

은미 : 응. 음식 문화에 특히 영향을 미쳤어.

한수 : 어떤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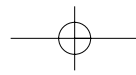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은미 : 유명한 한국의 음식은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이잖아.

한수 : 그래.

은미 : 이 음식들이 다 발효 음식이야. 그리고 이 음식들을 보관하던 장독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한국의 흙으로 빚은 장독이 발효 음식을 발달시킨 거지.

한수 : 아, 그렇구나.

- 책을 보다가 : while I was reading a book
- ~다가 : while
- 특히 : especially



- 다 : all
- 결국 : after all ; thus ; ther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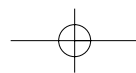
2. 대치 연습

- (1) 한국의 음식이 | | 흙의 덕이라는 | | 걸 알아냈어.
 지도가 | | 호랑이 모양이라는 | |
 기후가 | | 변한다는 | |
- (2) | | 나도 | | 몰랐어.
 | | 그녀도 | |
- (3) 이 음식들을 | | 보관하던 | | 장독은 | | 한국의 흙으로 만들어졌지.
 | | 담는 | | 그릇은 | |

3. 문답 연습

- (1) A : 한국의 전통 문화재에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B : _____

- (2) A : 넌 질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B : _____
 A : 난 알아. 왜냐 하면, 우리 엄마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야.



Ⅲ. 학습 문제

1. 양쪽이 자연스럽게 통하도록 맞는 기호를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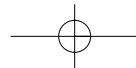
- _____ (1) 몇 번이나 이사를
 할 때마다
- _____ (2) 질그릇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이야기들
 은
- _____ (3) 흙으로 빚어 만든
 장독들은
- _____ (4) 그렇게 오랜 시간
 을 기다리다 보니
- _____ (5) 항아리 바깥 쪽에
 여러 개의 웅기가
 더 붙어 있어

- ㄱ. 나에게 한국 전통 문화의 슬
 기로움을 가르쳐 준다.
- ㄴ. 지쳐서 눈 앞이 잘 보이지 않
 았다.
- ㄷ. 전체 모양이 아주 특이한 게
 마음에 들었다.
- ㄹ. 그 수요가 줄어들어 조심스럽
 다. 그래서 이사하기는 힘들다.
- ㅁ. 숨을 쉬기 때문에 내용물을
 그대로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1. 다음 글을 영어로 번역하세요.

- (1) 어렸을 때 큰덕에 놀러가면 일하는 처녀가 물을 길어 날라다
 부엌의 양 귀퉁이에 있는 두 항아리를 채우곤 했다.

- (2)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선조들의 슬기로움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감탄할 뿐이다.



제 12 과 실용문 세 편

Ⅰ 약정서

고등반 학생 여러분!

방학을 즐겁게 보냈습니까? 여러분의 대부분이 지난 해에 나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가깝게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같은 반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그 우정이 오래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전화 번호를 교환하여, 혹시 결석을 했을 때 숙제를 물어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거나 서로 다른 학교의 정보를 교환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말을 쓰십시오. 날로 발전하는 한국의 경제와 함께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가면서, 한국은 여러분과 같이 몇 개 국어를 하는 훌륭한 인재를 더욱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 보람된 일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이번 한 해는 한국어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 개발에 힘을 씁시다.

1997년 8월 24일
담임 이 정 성

.....(하단을 잘라 선생님께 제출하십시오.).....

약 정 서

나 _____은 / 는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97~
(학생 이름/print)'98학년 동안 이 한국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여 한국 문화를 공부할 것을 다짐합니다.

학생 서명 _____ 날짜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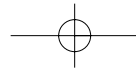
2 초대장

여러분을 '동창의 밤'에 초대합니다.

이 모임은, 우리의 우정을 깊이 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일 년에 한 번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전통적으로 본교 내에서 모이고 있으며, 그 동안 매번 즐겁고 뜨거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 동창들이 한 자리에서 환담하면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의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지난 일 년 동안의 얘기를 나누면서, 우정을 더욱 깊게 하고 싶습니다.

동창회에서는 매년 참가하시는 동창들의 성원을 무척 고



맙게 생각하며, 뜻을 같이 하시는 동창들과 꼭 만나려고 하
오니,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모임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날짜 : 1997년 12월 9일 (토)
- 시간 : 7:00 PM. ~ 12:00 PM.
- 장소 : 본교 4층 식당
- 회비 : 1인당 \$20 이상

1997년 10월 1일

보람 고등 학교 동창회 회장 김 만 세

‘동창의 밤’ 참가 신청서

참가자 : _____

동창회비 : () \$20 () \$25 () \$30

※ 수표는 ‘The Graduates Association of Boram Korean School’로
발행해 주십시오.

3

교내 올림픽 '97

- 날짜 : 1997년 11월 5일
- 시간 : 1 : 00 PM. ~ 2 : 30 PM.
- 장소 : 본교 체육실(1층)
- 준비물 : 운동복, 운동화

경기 종목	참가 대상	준비물
1. 에어로빅	학생 · 교사 · 학부모 전원	녹음기, 테이프
2. 짝짓기	학생 · 교사 · 학부모 전원	녹음기, 테이프
3. 눈 가리고 깃대 돌아오기	유치반 · 1반 어린이	눈 가리개, 깃대 2개
4. 풍선을 다리사이에 끼고 깃대 돌아오기	2반 · 3반 어린이 · 학부모	풍선, 깃대 2개
5. 공 드리블하며 깃대 돌아오기	4반 · 5반 어린이 · 학부모	공 2개, 깃대 2개
6. 줄다리기	학생 · 학부모 전원	줄다리기 밧줄
7. 그릇에 콩주머니 넣기	청 · 백팀 대표	콩주머니 100개, 바구니 2개
8. 제기차기	6반 · 7반 어린이 · 학부모	제기 2개
9. 홀라후프 돌리기	중등반 · 고등반 학생 · 학부모	홀라후프 2개
10. 피구	청 · 백팀(학생, 학부모 전원)	공 1개
11. 포크 댄스	학생 · 교사 · 학부모 전원	녹음기, 테이프

※ 모든 경기에 적극 참여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준비 위원 :

김명옥 : 에어로빅 · 포크 댄스 지도, 음악, 녹음기

천세다 : 훌라후프(1), 줄다리기 밧줄, 호루라기

조경준 : 눈 가리개(2), 제기(2), 콩주머니(100), 바구니(2), 호루라기, 마스크테이프

김미선 : 공(2), 훌라후프(1)

이명장 : 깃대(2), 풍선(실)

허영웅 : 게임 기록 카드, 사인펜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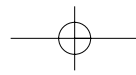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1. 본문 ㉠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 ① 학생 → 친구들 ② 부모님 → 선생님
③ 선생님 → 학생 · 부모님 ④ 부모님 → 선생님 · 학생

(2) 글의 내용과 맞는 것은 T, 틀린 것은 F를 쓰세요.

- () ① 선생님은 앞으로 한 해 동안 학생들과 더 가깝게 되기를 바랍니다.
() ② 학생들이 반 친구들과 우정을 오래 나누기를 바랍니다.
() ③ 결석을 했을 때 숙제를 친구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 ④ 같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⑤ 한국 학교에서만 한국말로 쓰십시오.
() ⑥ 한국은 앞으로 몇 개 국어를 하는 훌륭한 인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 ⑦ 한국어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능력 중 한 개의 언어 영역만 개발시키십시오.



2. 본문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동창의 밤’은 왜 마련됐습니까?

① 이유 1 _____

② 이유 2 _____

(2) 동창회에서는 무엇을 고맙게 생각합니까?

→ _____

(3) 동창회는 몇 시간 동안 계속 될까요?

_____ 시간

3. 본문 3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교내 올림픽을 위해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2) ‘짜짓기’는 누구를 위한 경기입니까?

(3) ‘바구니에 콩주머니 넣기’ 경기에 필요한 준비물은?

(4) 이 교내 올림픽 '97을 준비하신 선생님 중 녹음기를 준비하실 분은?

Ⅱ. 회화 학습

1. 문형 연습

천세다 : 조 선생님, 이번 교내 올림픽은 11월 5일에 있죠?

조경준 : 네.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예요.

천세다 : 전 바구니에 콩주머니 집어넣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경준 : 콩주머니를 어떻게 만들죠?

천세다 : 먼저 형짚을 꿰매서 주머니를 만들고, 팔이나 빨간 콩
을 집어 넣으면 되죠.

조경준 : 몇 개나 필요할까요?

천세다 : 아마 100개 정도는 필요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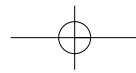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조경준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했으면 좋겠어요 : I'd like to

2. 대치 연습

(1) 전	바구니에	콩주머니 집어 넣기를	했	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늦게	갔	
	머리를	짧게	잘랐	

(2) 아마	100개 정도는	필요하겠죠.
	돈이	
	구슬이	



(2)	그럴	것 같습니다.
	끝낼	
	성공할	

3. 문답 연습

A : 선생님께서 보내신 편지 받았니?

B : 아니, 무슨 편지?

A :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약정서를 쓰래.

B : _____

A : 왜 그렇게 놀라니?

B : _____

Ⅲ. 학습 문제

1.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꾸어 쓰세요.

<보기> 나는 만나다 생각한다.

나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1) 내가 길을 잃다. 생각한다.

(2) 동생이 체리를 먹다. 생각한다.

(3) 선생님께서 화를 내시다. 기억한다.

(4) 삼촌이 비오는 날에 극장에 가다. 생각한다.

2. 다음 글을 잘 읽고, 아래의 빈 곳에 꼭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세요.

1997년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본 교 3층 강당에서 바자가 있습니다. 저희 동창회에서는 운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품목의 기증을 환영합니다. 학용품, 선물용품, 헌옷, 한복, 태권도복, 김밥, 불고기 등 여러분께서 내실 수 있는 품목을 내주시고, 또 바자에서 많은 물품들을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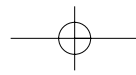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_____ (모임의 제목)

• 날짜 : _____

• 시간 : _____

• 장소 : _____

• 기증 품목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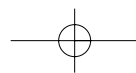
3. 한국 신문에서 짧고 재미있는 기사를 오려 이 곳에 붙이세요.

4. 위의 신문 기사 내용을 읽고, 다음 내용을 적어 보세요.

- (1) 언제 : _____
- (2) 어디서 : _____
- (3) 누가 : _____
- (4) 무엇을 : _____
- (5) 어떻게 : _____
- (6) 왜 : _____

5. 위의 내용을 파트너에게 읽어 주세요. (내용을 보여 주지 마세요.)
파트너는 잘 듣고, 내용을 간단히 써 보세요.

[파트너의 기사 요약]



제 13 과 한국의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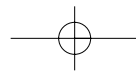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무궁화



나라마다 나라꽃이 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주마다 주의 꽃이 정해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한 일도 없이, 자연스럽게 무궁화가 국화로 굳어졌고, 또 국민들은 이 꽃을 사랑해 왔다. 무궁화는 피고 지고, 지고 피면서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꽃을 피우는, 이름 그대로 무궁화이다.

1956년,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식물원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 식물원은 규모의 방대함은 물론, 내용의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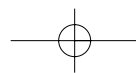
3. 한국 신문에서 짧고 재미있는 기사를 오려 이 곳에 붙이세요.

4. 위의 신문 기사 내용을 읽고, 다음 내용을 적어 보세요.

- (1) 언제 : _____
- (2) 어디서 : _____
- (3) 누가 : _____
- (4) 무엇을 : _____
- (5) 어떻게 : _____
- (6) 왜 : _____

5. 위의 내용을 파트너에게 읽어 주세요. (내용을 보여 주지 마세요.)
파트너는 잘 듣고, 내용을 간단히 써 보세요.

[파트너의 기사 요약]



제 13 과 한국의 자랑



무궁화



나라마다 나라꽃이 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주마다 주의 꽃이 정해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한 일도 없이, 자연스럽게 무궁화가 국화로 굳어졌고, 또 국민들은 이 꽃을 사랑해 왔다. 무궁화는 피고 지고, 지고 피면서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꽃을 피우는, 이름 그대로 무궁화이다.

1956년,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식물원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 식물원은 규모의 방대함은 물론, 내용의 충

실함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식물원이었다. 그 식물원의 본관 앞뜰에는 여러 그루의 큰 무궁화 나무가 있었는데, 꽃이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광경은 내 기억에서 한평생 지울 수 없는 인상 깊은 것이었다. 나를 안내해 주던 식물원 직원 한 사람이 자기는 이 무궁화를 가장 좋아하며, 본관 앞 일대의 무궁화 나무를 식물원의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더구나, 꽃잎 바탕 깊숙한 화심에 짙은 보랏빛 심문이 야무지게 자리잡은 단심 무궁화는, 어느 꽃보다도 아름다워 보였다. 푸른 숲을 배경으로 우단을 깔아 놓은 듯 곱게 다듬은 잔디밭 위에, 잘 가꾸어진 여러 그루의 무궁화가 아침 나절에 만발한 모습은, 한국 사람인 나에게 잊기 어려운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나는 식물원 간부에게 이 꽃이 바로 우리 한국의 국화라고 버젓하게 자랑할 수가 있었다. 그는, 당신 나라는 참으로 좋은 꽃을 국화로 정하였다고 칭찬하면서, 식물원 심장부에 화려하게 핀 무궁화의 꽃 숲을 새삼 자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나도 그 찬란한 무궁화 숲이 마치 우리 나라의 환상인양 도취되어 바라보았다. 참으로 흐뭇한 심정이었다.

(유 달 영)

2

고려 자기

고려 시대라 함은, 지금부터 1070년 전 태조 왕건이 고려국을 세웠다가 망할 때까지의 475년간을 가리켜 이른 말이다. 이 동안에 만들어낸 자기 그릇을 고려 자기라 한다.

고려 자기는 그 지은 솜씨가 묘하고 예쁘다. 그 빛깔로 말하면 파랑빛, 하얀 빛, 검정빛, 감빛, 무쇠빛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빛은 파랑빛이다.

다른 사기와 같이 겉으로 파랑물을 칠한 것이 아니요, 그 속바탕을 새파란 흙으로 만들고 그 위에 유리칠을 씌웠다. 유리 속을 통하여 은은히 비쳐 나오는 파란 빛은, 꼭 비 갠 뒤의 깨끗한 가을 하늘이나 깊은 물결같이 고상하고 우아한 기분이 저절로 떠오른다.



꽃병, 차관, 사발, 연적, 소합 등 여러 가지 그릇엔 날아가는 새, 달아나는 짐승 외에도 수박, 대순, 꽃송이 등을 그렸으며, 봉황이 춤추고 백학이 놀며 구름이 떠돌고 고기가 뛰는 가지가지 자연의 모양을 기막힌 솜씨로 그려 놓았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이러한 자연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실지로 만들어서 그림 면에 끼워 놓은 것이다. 이는 고려 자기에서만 보게 되는 재주이다.

그러므로 외국 사람들도 이러한 고려 자기를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다.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1. 본문 ㉠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한국의 나라꽃 이름은 무엇입니까?

(2) 무궁화의 말 뜻은 무엇입니까?

(3) 글을 쓴 분은 미국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4) 그 곳에서는 무엇을 큰 자랑거리로 생각합니까?

(5) 무궁화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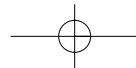
() ① 무궁화는 한국의 나라꽃이다.

() ② 무궁화는 rose of Sharon이라고 한다.

() ③ 무궁화는 한국에서만 피는 꽃이다.

() ④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지치지 않고 꽃을 피운다.

() ⑤ 단심 무궁화는 깊은 화심에 짙은 보랏빛 심문이 자리 잡고 있다.



2. 본문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다음 글을 읽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T자를 써 넣으세요.

- () ① 고려 자기에는 여러 가지 빛깔이 있다.
 () ② 고려는 475년간 계속 되었다.
 () ③ 고려 자기 색깔 중에서도 파란 색이 더욱 아름답다.
 () ④ 고려 자기는 고려 시대에 만들어 낸 질그릇이다.
 () ⑤ 태조 왕건이 고려국을 세웠다.
 () ⑥ 고려 자기의 아름다움은 한국의 자랑거리다.

(2) 고려 자기의 파란색은 꼭 무엇과 같이 아름답습니까?

(3) 고려 자기의 여러 가지 그릇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V표를 하세요.

- () ① 사발 () ② 술병 () ③ 꽃병
 () ④ 연적 () ⑤ 소합 () ⑥ 차관

II. 회화 학습

1. 문형 연습

A : 한국의 자랑거리가 무엇일까?

B :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지.

A : 그 중에서도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B : 한글, 고려 자기, 불국사, 한복, 태권도 등이지.

A : 왜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지?

B : 첫째는 반만 년의 긴 역사를 가졌고…….

A : 둘째는 뭐야?

B : 둘째는 우리 조상들이 슬기로웠기 때문이지.

·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지 : There are so many that they are innumer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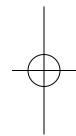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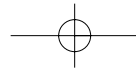
· 반만 년의 긴 역사 : long history of five thousand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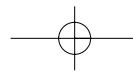
2. 대치 연습

(1)	고려 자기는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의 자랑거리다.
	한글은	
	불국사는	
	한복은	

(2)	아름다운	광경은 내 기억에서 지울 수 없다.
	슬픈	
	인상 깊은	
	놀라운	

(3) 한국의	국화라고	버젓하게 자랑한다.
	글자라고	
	노래라고	
	새라고	





(4) 그 중에서도 파란 색깔이 아름답다.

한글이
무궁화가
한복이

(5) | 볼 | 때마다 감탄한다.

만날
읽을
입을

3. 문답 연습

A : 한국의 자랑거리 중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지?

B : _____

A : 왜?

B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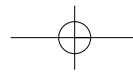
A : 난 _____ 자랑스럽고 좋아.

왜냐 하면, _____

B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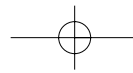
Ⅲ. 학습 문제

1. 본문 ㉠을 읽고, 그 내용 중 4가지 중요한 사건을 선택해서 그 사건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쓰세요.



<p><u>사건 1</u></p> 	<p><u>사건 2</u></p>
<p><u>사건 3</u></p> 	<p><u>사건 4</u></p>

2. 집에 있는 한국의 사기 그릇을 학교에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그릇의 모양과 빛깔과 무늬를 설명하고, 언제 어떻게 부모님께서 지니게 되셨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제 14 과 여러 가지 말하기

I

주어진 화제에 대하여 말하기

어떤 화제를 정해 놓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화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미리 화제를 알려 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즉석에서 화제가 주어질 때에는 평소의 지식 유무가 이야기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예기치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화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이야기의 흐름이 그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듣는 이가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2

읽은 내용 말하기

어떤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그 줄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에는 그 시각적 인상이 비교적 선명히 남아 있어서 줄거리를 요약, 전달하는 것이 쉬운 편이다. 하지만 글을 읽고 그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해한 것을 전달해야 할 때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읽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읽는다.
-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 잘못 읽은 점이 없나 다시 검토한다.

3

즉흥적으로 말하기와 메모하여 말하기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 뜻하지 않게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모임에서 이런 경우를 겪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이런 때에는 그 모임의 성격을 잘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적절한 말하기 요령으로 말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 말하기의 순서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메모하여 말하면, 즉흥적으로 말할 때보다는 훨씬 더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다. 상황에 따르는 임기응변의 재치를 믿기보다는, 메모하여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4 일어난 일 정확하게 말하기

직접 겪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는 무엇보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건을 전달할 때에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의견은 되도록 삼가고, 그 사건의 진행 과정만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제삼자에게 전달할 때에도, 개인적인 느낌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느낌이나 의견이 개입되면 이야기가 와전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목적한 일이나 들은 일 등을 사실대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육하 원칙(5W1H)에 따라 말하는 것이 좋다.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1. 본문 ①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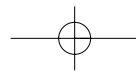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1) 어떤 화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2)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 본문 ②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줄거리를 말하는 것과, 글을 읽고 내용을 말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 읽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유의할 점을 말해 보세요.



3. 본문 ③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과 메모하여 말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말
해보세요.

(2) 어떤 모임에서 갑자기 말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점을 고려
하여 말해야 되는가요?

4. 본문 ④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직접 겪은 일을 전달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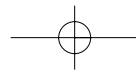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2)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하여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가
요?

Ⅱ. 회화 학습

1. 문형 연습

(1) ~기 위해서는 ~야 한다 :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화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아울러 : 이야기의 흐름이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야한다. 아울러,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생활을 하다 보면 :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앞에
서 뜻하지 않게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기 위해서는 ~야 한다 : ~ need to (do) (in order) to ~

· 아울러 : and also

· 생활을 하다 보면 : in one's life

2. 대치 연습

※ 밑줄 친 곳의 말을 □ 안의 말로 바꾸어 말해 봅시다.

(1)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화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①

공부를 잘 하다
외국어를 잘 하다
성공하다

②

노력을 하다
현지에 가다
계획을 잘 세우다

(2) 이야기의 흐름이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
러,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윗분을 잘 모시다
교통 법규를 지키다
나라를 사랑하다

②

아랫사람을 사랑하다
양보를 할 줄 알다
세계를 사랑하다

(3)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 뜻하지 않게 말을 해야
①

하는 경우가 있다.

①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다
변호사를 찾아가다
하기 싫은 일을 하다

3. 문답 연습

(1) 문 :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아야 합니까?

→ (성대)

답 : _____

(2) 문 :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 (자기 일에 충실, 아
울러, 남의 일에도 관심 갖기)

답 : _____

(3) 문 : 왜 변호사를 찾아 갔어요? → (생활을 하다 보면)

답 : _____

(4) 문 : 다른 사람 앞에서 뜻하지 않게 말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만
나게 되면 어떨까요? → (당황)

답 : _____

Ⅲ. 학습 문제

1. 본문 [1]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외국 여행을 떠날 때, 다음 사항 중 사전 지식이라고 볼 수 없
는 것은?

- ① 그 나라의 기후 ② 그 나라의 언어
③ 그 나라의 풍습 ④ 그 나라의 안내자

(2) 다음 중 ‘예기치’의 ‘치’와 달리 잘못 쓰인 것 하나는?

- ① 무심치 ② 혼치 ③ 당치 ④ 익숙치

(3) ‘자연 보호’라는 화제에서 빛나간 발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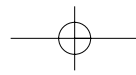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 ① 자연은 우리 생활의 터전이다.
② 자연이 갈수록 오염되고 있다.
③ 사람이 있고 자연이 있다.
④ 사람과 자연은 같이 존재한다.

(4) ‘회장이 회원을 이끌어 간다.’ → ‘회원은 회장에 의하여 ()
간다’에서 ()안에 적당한 말을 넣어 보세요.

2. 본문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그리’가 자연스럽게 쓰인 문장은?

- ① 그리 쉬운 일이다.
②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다.
③ 그리 어려운 일이다.
④ 그리 힘든 일이다.



(2) 다음에서 뒤에 ‘이다’를 붙이면 어색한 것은?

- ① 비교적 ② 희망적 ③ 즉흥적 ④ 효과적

(3) ‘성격’을 읽을 때 소리나는 대로 써 보세요.

(4) ‘어렵다 → 어려움’과 같이, 다음을 명사형으로 고쳐 보세요.

- ① 쉬다 → () ② 쉽다 → ()
③ 그리다 → () ④ 그립다 → ()

3. 본문 [3]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즉흥적으로 하는 일 중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 ① 작곡 ② 작시
③ 결단 ④ 아이디어

(2) ‘다른 사람 앞에서 뜻하지 않게 말하게 된다.’에서 ‘뜻하지 않게’의 의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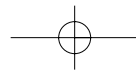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 ① 갑자기 ② 의외로
③ 예외로 ④ 뜻에 벗어나게

(3) ‘이런 경우를 겪게 된다.’의 ‘겪게’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 ① 보게 ② 당하게
③ 마주치게 ④ 알게

(4) ‘적절한 말하기 요령’에서 ‘말하기’ 다음에 넣을 수 있는 말은?

- ① 예 ② 의 ③ 와 ④ 인



4. 본문 [4]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직접 겪다’를 한자어로 말할 때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체험 ② 시험
③ 탐험 ④ 실험

(2) ‘삼가다’의 명령형을 써 보세요.

(3) 다음 중 ‘제삼자’에 해당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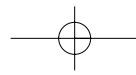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 ① 나 ② 너
③ 그 사람 ④ 우리

(4) 최근 여러분이 겪는 사건을 육하 원칙(5W1H)으로 말해 보세요.

IV. 보충 학습 자료

인사말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인사말을 많이 하게 된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인사, 축하와 감사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 등 수많은 인사말이 있다. 이러한 때에 대상과 상황에 따라 알맞은 인사말을 해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인사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해외 여행 중에 만난 한국 사람

(2) 목장을 경영하는, 친구의 삼촌

2. 다음 상황에 적절한 축하나 감사의 말을 해 보세요.

(1) 졸업식날 부모님께

(2) 결혼하는 오빠나 누나에게

3. 다음 상황에 적절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 보세요.

(1) 병원에 입원한 친구

(2)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4.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카드에 쓸 말들을 써 보세요.

(1) 졸업 : _____

(2) 조문 : _____

제 15 과 전화 예절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한국 속담이 있듯이, 간결하고 친절한 한 마디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상대의 모습은 볼 수 없고 말로만 의사 소통을 하게 되는 전화에서는 특히 상대방의 말에 따라 감정이 좌우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화를 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받는 사람도 자기를 밝히고 인사를 하는 것이 전화 예절의 기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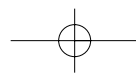
■받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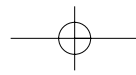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벨이 울리면 수화기를 들고 ;

전화기의 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는 쪽이 먼저 말을 해야 하는지, 거는 쪽이 먼저 말을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먼저 말을 시작한다. 집에서는 이 상황에서 “여보세요.”라고 말한다.

전화를 바꾸어 줄 때 ;

전화를 바꾸어 줄 때의 말은 집에서나 직장에서 모두 “네, 잠시(잠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를





1.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인사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해외 여행 중에 만난 한국 사람

(2) 목장을 경영하는, 친구의 삼촌

2. 다음 상황에 적절한 축하나 감사의 말을 해 보세요.

(1) 졸업식날 부모님께

(2) 결혼하는 오빠나 누나에게

3. 다음 상황에 적절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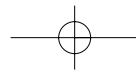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1) 병원에 입원한 친구

(2)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4.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카드에 쓸 말들을 써 보세요.

(1) 졸업 : _____

(2) 조문 : _____



제 15 과 전화 예절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한국 속담이 있듯이, 간결하고 친절한 한 마디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상대의 모습은 볼 수 없고 말로만 의사 소통을 하게 되는 전화에서는 특히 상대방의 말에 따라 감정이 좌우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화를 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받는 사람도 자기를 밝히고 인사를 하는 것이 전화 예절의 기본이다.

■받을 때

벨이 울리면 수화기를 들고 ;

전화기의 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는 쪽이 먼저 말을 해야 하는지, 거는 쪽이 먼저 말을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먼저 말을 시작한다. 집에서는 이 상황에서 “여보세요.”라고 말한다.

전화를 바꾸어 줄 때 ;

전화를 바꾸어 줄 때의 말은 집에서나 직장에서 모두 “네, 잠시(잠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를

쓰는 것이 좋다. 만약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구(시)라고 전해 드릴까요?”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도 소홀하게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지금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라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답하도록 한다.

잘못 걸려온 전화일 때 ;

전화가 잘못 걸려 오면 무의식적으로 불친절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모두 “아닌데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 걸 때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

집에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여기는) ○○○입니다. ○○○씨 계십니까?”하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 어린 사람의 경우, 어른이 전화를 받았을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 친구 △△입니다. ○○ 있습니까?”처럼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어떠한 관계인가를 밝히는 것이 좋다.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는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

니까?”, “죄송합니다만(미안합니다만), ○○○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말을 쓰도록 한다.

대신 거는 전화 ;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전화를 대신 걸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적당한 말로는 “안녕하십니까? ○○○님의 전화인데요, △△△씨를 부탁드립니다.”가 바람직하다.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는 귀찮은 듯이 전화기를 탁 놓지 말고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다.

■ 끊을 때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하고 인사를 하고 끊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우리말의 예절’에서)



■전화를 받을 때의 말

벨이 울리면 수화기를 들고	집	여보세요.[모범답] 여보세요.(지역 이름)입니다.[허용] 네, (지역 이름)입니다. [후보]
	직장	네, ○○○○입니다.
전화를 바꾸어 줄 때	집	(네,) 잠시/잠깐/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직장	(네,) 잠시/잠깐/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집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직장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잘못 걸려 온 전화일 때	집	아닌데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직장	아닌데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전화를 걸 때의 말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집	안녕하십니까? (저는/여기는) ○○○입니다. △△△씨 계십니까?
	직장	안녕하십니까? (저는/여기는) ○○○인데요. △△△씨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교환일 때) 안녕하십니까? ○○번 좀 부탁드립니다.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집	죄송합니다만, ○○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직장	죄송합니다만, ○○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대신 거는 전화	직장	안녕하십니까? ○○○님의 전화인데요, △△△씨를 부탁드립니다. (부탁한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 ○○○입니다. △△△님의 전화인데요.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집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직장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의 말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 본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전화 벨이 울리면 받는 쪽이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2. 서로 관계 있는 것을 찾아 보세요.

____(1) 전화를 바꾸어 줄 때

____(2)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____(3) 잘못 걸려 온 전화일 때

____(4) 전화 걸 때

____(5)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____(6) 끊을 때

ㄱ.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
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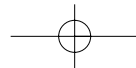
ㄴ.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
니까?”

ㄷ. “지금 안 계십니다. 뭐라
고 전해 드릴까요?”

ㄹ.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
십시오.”

ㅁ.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
렸습니다.”

ㅂ. “저는 ○○의 친구 △△
입니다. ○○ 있습니까?”



3. 다음 중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 (1) 만약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절대 누구냐고 물어 보지 않는다.
- (2)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는 귀찮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는다.
- (3)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한다.
- (4) 전화를 끊을 때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내려 놓는다.

II. 회화 학습

1. 문형 연습

(1)

어머니 친구 : 여보세요.
 상현 : 여보세요.
 어머니 친구 : 나는 엄마 친군데, 너의 어머니 계시니?
 상현 : 지금 동생 데리러 가셨습니다.
 어머니 친구 : 그럼 스카스테일에 사는 정미 엄마가 전화했었다고 알려 드리면 고맙겠다.
 상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친구 : 그래, 잘 있어라.

- ~친군데 = 친구이다 + 그런데 (and then)
- 너의 = 네 ; your

(2)

진선 : 여보세요. 크리스틴 좀 바꿔 주세요.
 현정 : 누구라고요?
 진선 : 크리스틴이에요. 212-864-8789 아닙니까?
 현정 :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진선 :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요.
 아! 지역 번호가 틀렸네요. 미안합니다.
 현정 :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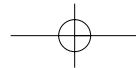
-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 There's no one by that name.
-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요 ; I spoke with her even yester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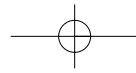
2. 대치 연습

(1) 나는	엄마	친군데 너의	어머니	계시니?
	할머니		할머니	
	이모부		이모부	

(2)	정미 엄마	가/이 전화했었다고	해라.
	친구 현철이		말씀해 주십시오.
	외삼촌		말씀해 주십시오.
	동생 영준이		말씀해 주십시오.

(3) 제가 어제	통화	를/을	했	는데요.
	영수		보았	
	물		주었	





3. 문답 연습

A : 여보세요. 성공 실업입니다.

B : 박 사장님 계십니까?

A : 네, 어디시라고 전해드릴까요?

B : _____

A :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시
는데요.

B : _____

A : 3시 반에 들어오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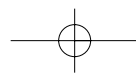
B : _____

A : 네, 그렇게 하십시오.

B : 감사합니다.

Ⅲ. 학습 문제

1. 전화 예절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2. 여러분은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전화 벨이 울려 수화기를 들었는데, 저쪽에서

“난데 말이야, 부장 바뀌.”

라고 한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다. 미스 홍이 묻는다.

“실례지만 어디시죠?”

“어디냐구?”

“네, 어디냐구 여쭙 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저는 부장님 비서입니다.”

“그럼, 잔말 말고 빨리 바꾸면 되잖아?”

“뭐라구요?”

“여봐, 잔말 말아!”

이렇게 전화를 끊은 미스 홍에게 박 부장이 그의 사무실로
오란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방금 전화를 한 사람이 바로 C 회
사의 사장이라고 알려 준다.

여러분이 미스 홍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
습니까?

제 16 과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



• 플란더즈 화풍으로 잘 알려진 거장 루벤스(1577~1640)의 그림 「한복 입은 남자(A Man in Korean costume)」

‘한복 입은 남자’라고 제목이 붙은 17세기 루벤스의 그림이 영국의 경매장에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보도는 미술에 문외한인 나에게도 가벼운 흥분을 일으키기에 족한 것이었다.

한국인이 소재가 되었다는 것이라 해서 이것이 곧 한국 미술사에 한 줄을 보태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림 자체의 미술적 평가는 감히 언급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 무렵에 벌써 한국인이 유럽에 알려져 있었다는 것도 대견한 느낌이다.

이 소식을 그날 조간에서 처음 읽고 나는 얼른 안토니오 코레아를 생각했다. 급한 대로 백과 사전을 찾아보니 루벤스의 활동 연대와 안토니오 코레아의 도항 연대가 엇비슷했다.

한국인으로서 처음 유럽 구경을 한 사람이 임진왜란 때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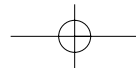
본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탈리아인 수사에게 노예로 팔려간 안토니오 코레아, 그는 이탈리아에서 교육을 받고 그 곳 교회 일을 보다가 죽었으나 그 후손이 지금도 코레아(Corea)라는 성으로 더러 살고 있다는 현지 탐방기를 몇 해 전에 보았다.

반대로 유럽인으로서 처음 한국 구경을 한 사람은 역시 임진왜란 때 천주교 신도였던 일본인 고니시 유키나가를 따라 경남 웅천의 싸움터에 한동안 와 있던 포르투갈인 선교사 세스페데스. 그는 일 년 남짓 그 곳에 머무르다가 돌아갔으나 현지인과의 접촉은 별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16세기 말의 임진왜란 전후가 되면 저 프란시스 자비에트, 마테오리치 같은 거물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동양을 누비고 다녔다. 문제의 그림이 천주교 동양 전래라는 큰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된다.

조간 신문에서 보도가 된 그 날 석간 신문부터 자세한 뉴스가 잇달았다. ‘한복 입은 남자’의 주인공에 대하여 종교사의 전문가 한 분은 역시 안토니오 코레아일 가능성을 지적했고, 어떤 분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으로 팔려간 포로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루벤스가 극동에까지 와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복식사의 전문가들은 주인공이 입은 옷이 ‘천릭’이라는 것을 금세 증언했다. 임진왜란 전후의 평상시 외출복 정장이었



다 한다. 머리에 얹은 것은 ‘말총 방갓’이라 했다. 이 그림이 한동안은 ‘중국옷 입은 남자’로 불렸다고 하지만 복장이 한국 것임에 이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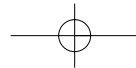
미술 평론의 어느 분은, 광대뼈가 나오고 미간이 넓은 주인공이 분명 한국인이라 했다. 그렇게 보니 과연 그럴 듯하다. 그렇다면, 극동에서 활동하던 선교사가 이런 옷차림의 그림을 가지고 갔거나, 옷을 가지고 가서 이런 차림을 해 보였을 거라는 과거 외국인들의 추측은 잘못지 않은 셈이다.

전체로 풍기는 품이 젊은이인데도 상당히 격이 있어 보인다. 포로로 노예가 된 주제에 그럴 수 있겠느냐 할 것은 없다. 포로라고 모두가 천덕꾸러기는 아닌 것이다. 일례로 역시 임진왜란 때 잡혀갔던 도공들이 일본 각지에서 당당하게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그림 한 폭을 놓고 각 방면의 지식을 종합해 보니 이 정도의 윤곽이 잡혔다는 것도 즐겁다. 우리의 학문도 이 정도로 자리가 잡혔다는 증거다.

덧붙이자면, 한국사는 세계 속에서 숨쉬고 있다.

(천 관 우)



학 습 활 동

I. 내용 학습

※ 본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영국의 경매장에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 작품의 이름은?

2. 지은이는 무엇이 대견하다고 했습니까?

() (1) 17세기에 벌써 한국인이 유럽에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

() (2) 루벤스 그림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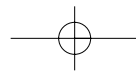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 (3) ‘한복 입은 남자’가 한국 미술사에 미치는 영향

() (4) ‘한복 입은 남자’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린 사실

3. 한국인으로서 처음 유럽 구경을 한 사람으로 알려진 분의 이름은?

4. 한국인으로서 처음 유럽 구경을 한 사람이 유럽의 한 나라에 정착하게 된 경로는?

한국 → _____ → _____
(나라 이름) (나라 이름)



5. ‘한복 입은 남자’에 대한 해석이 각 분야마다 다른데, 그 각 분야의 주장을 써 보세요.

(1) 종교사의 전문가 : 그 남자는 안토니오 코레아일 것이다.

(2) 어떤 해석 1 : _____

(3) 어떤 해석 2 : _____

(4) 복식사의 전문가 : 그의 옷은 임진왜란 전후에 입었던 평상시 외출복의 정장이다.

(5) 미술 평론가 한 분 : _____

(6) 지은이의 느낌 : 전체로 풍기는 품이 젊은 나이에 상당히 격이 있어 보인다.

6. 안토니오 코레아는 이탈리아에서 교육을 받고 그 곳 교회 일을 보다가 죽었다고 하는 근거를 써 보세요.

Ⅱ. 회화 학습

1. 문형 연습

혜정 : 선생님, 저는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당당한 한국인 상이라 유명하지.

혜정 : 당당한 표정이 어떤 표정이에요?

선생님 : 어떤 환경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표정에 자신감이 넘쳐 흐르지.

혜정 : 그림의 옷이 한국 남자의 옷인가요?

선생님 : 그 옷의 이름이 ‘천릭’이라고 한대.

혜정 : 그것은 언제 입는 옷인가요?

선생님 : 평상시 외출복으로 입었다고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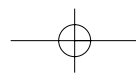
· 왜 그렇게 유명한 지 모르겠어요 ; I don't understand why it is so famous.

· 넘쳐 흐르는 ; full of ~

· ~라고 부른다 ; It is called that ~

2. 대치 연습

(1) 왜 그렇게	유명한	지 모르겠어요.
	비싼	
	힘이 센	
	아름다운	



(2) 당당한 | 얼굴 표정 | 이/가 좋다.

걸음걸이

태도

반대론

(3) 얼굴 표정에 | 자신감 | 이/가 넘쳐 흐른다.

비굴함

성실함

강한 의지

(4) 그 | 당당함 | 이 한국인 상이다.

부드러움

착실함

아름다움

3. 문답 연습

A : 이 옷을 보십시오. 색깔이 참 아름답죠?

B : _____

A : 어떻게 이렇게 화려할까요?

B : _____

A : 그런데 이 옷은 언제 입었을까요?

B : _____

Ⅲ. 학습 문제

1. 여러분에게 큰 감명을 준 그림이 있습니까?

2.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3. 그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해 아는 바를 써 보세요.

4. 여러분이 루벤스가 그린 그림 속에 있는 ‘한복 입은 남자’라고 가

정하고 어떻게 그 그림의 모델이 되었는지, 그 화가를 만나기 전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그림의 모델이 된 이후 무엇이 달라

졌는지에 대해 써 보세요. 책에서 읽은 사실과 여러분의 상상력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창작하세요.

(이름)

[illegible]

• **알아 둘 말**

1. 생활과 수필

수필 essay

체험하다 to experience

아무렇게나 carelessly

짜임새 structure

바탕으로 based on

독자 readers

삶 life

되돌아보다 to look back

두세 배 two or three times more

라일락 lilac

느릅나무 an elm tree

장난감 toy

막상 when the moment arrives

화상 a burn

약방 pharmacy

부대 산업 subsidiary business

수선료 repair fee

머리말 introduction: prologue

병정 soldier

근위병 Honor Guard

꼼짝도 **않다** without moving at
all

은퇴하다 to retire

기관차	locomotive train
-----	------------------

철교 railway

터널	tunnel
----	--------

묻히다 be buried

골동품 an antique

골동품 수집가 antique collector

청자 찻잔 celadon tea cup

탐욕스런	greedy
------	--------

그대로 as is

2. 판단하고 듣고 말하기

대통령	president
-----	-----------

선거권 voting right

있으니까 since

반대야 be opposed to

사물 things; matters

판단할 수 없다 cannot ju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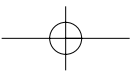
정확하게 correctly

평가할 수 없다 cannot evaluate

한 표	one vote
-----	----------

위험하다 to be dangerous

옳지 못한 not corr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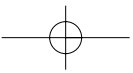


판단 judgement
똑똑한 smart
기본권 basic right
권리 rights
반드시 definitely
의무 duty
동시에 simultaneous
세금 taxes
미성년자 minor
저소득자 man with a small income
주말 weekend
사회 봉사 활동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작년 last year
고아원 orphanage
멀어 far
데려다 주시다 to take (a person)
가르치다 to teach
회화 실력 conversational skills
선택하다 to choose

3. 우리 속의 나

전쟁 war
잃고 lose and
고아 orphan

합창단 chorus
후반 second half
참전국 allies
순회 공연 a show on tour
찬사 praises
공연하다 to perform
관람객 audience
꽉 차다 full
박수 갈채 to clap
퇴장하다 exit
지휘자 a conductor
걸음걸이 manner of walking
오줌을 싸다 to pee
고개를 푹 숙이다 to sink one's chin into one's chest
오줌이 마렵다 feel like to pee
망신 humiliation
당황하다 to embarrass
꾸짖다 to scold
엉망이 되다 to be messed up
와락 껴안다 to hug
울고 말다 to cry
역을 맡다 to get a role
연습을 하다 to practice
휴일 vacation
드디어 finally
시민 회관 Citizen's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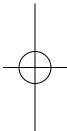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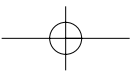
공연장 theater
출연자 a performer
가슴이 두근거리다 to feel nervous
참다 to tolerate
초조하게 nervously
실수 mistake
걱정이 되다 to worry
선녀 fairy
대장간 blacksmith's shop
참새 sparrow
까치 떼 a group of magpies
더욱 more and more
궁금해지다 to become curious
울창한 dense
쪼그리고 앉다 to sit crouching down
깨닫다 to realize
실망감 disappointment
표현하기 힘들다 difficult to express
포수 hunter
가끔 occasionally
얼굴을 가리고 있다 to cover one's face
찾았기 때문에 because I found it
분장실 dressing room
망설이다 hesitate

실망할까 봐 thought to be disappointed
눈치를 보다 to sense
뜻밖에 suddenly
건드리다 to touch
금방 at once
미안한 sorry
눈에 잘 띄다 be easily noticed
역할 role
열심히 hard
최선을 다하다 do one's best
부럽다 to envy
창피해서 embarrassed

4. 편지

점점 gradually
노력하다 to try hard
세 번밖에 only three times
생신 = 생일 birthday [formal]
polite
힘들다 difficult
비슷하다 to be similar
문법 grammar
맞춤법 spelling
아비/아버지 father: informal/formal





타국 a foreign contry
대략 gist
부탁하다 to request
장래 career; future
직접 directly
유감이다 to be regretful
지식 knowledge
정신 spirit; mind
기력 = 힘 power
쇠하다 to weaken
선전 포고 declaration of war
사선 the deadline
목숨 life
믿어 believe
대면하여 to face
경력 experience; career
절코 never
본받다 to follow the example of
진심으로 sincerely
동서 east and west
고금 all time
위인 great people
존경 respect
섬기다 to take care of
보태다 to add
지어 넣다 to make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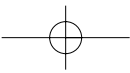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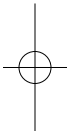
5. 한국의 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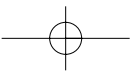
끝나자 after finishing
눈이 휘둥그래지다 to open one's
eyes widely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다 one's
heart is throbbing
부탁하고 싶은 I would like to ask
you to
마음을 놓다 to relax
담그다 to make
적어 달라고 to ask to write
무엇하시려고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어리둥절하다 to be puzzled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 to talk
continuously
신이 나다 to be excited
적어 드리고 말고 of course, I will
write it down
김치가 익다 when kimchi is
fermented
선사하다 to give a present
먹게 되었다 to get to eat
싱글벙글하다 to be beaming
조심스럽게 carefully
김치병을 안다 hugging a jar of

kimchi
저도 모르게 unconsciously
군침을 삼키다 to make one's
mouth water
대표적인 representative
뭘까? what?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같은데 seem
세계적인 global
과장하다 to exaggerate
증명하다 to prove
우선 first
올림픽 선수촌 Olympic Village
예를 들다 to give an example
항공사 중에서는 among airlines
기내 음식 cabin food
제공하다 to apply
뿐만 아니라 not only
별로 in particular
종류 kinds
다양하다 various
건강 음식 health food
하기 때문 because of
든지(맵다든지) either... or
어느 정도 to some extent
조절하다 to adjust
그렇다면 if

6. 자유라는 것

거닐다 to stroll
불쑥 suddenly
움켜쥐다 to grab
장난기 naughty
되솟아 reminded
식빵 부스러기 bread crumbs
맘껏 as much as one wishes
괴롭힐 일 bothersome work
그게 아니다 not that
먹을 줄 모르는 모양이다 doesn't
seem to know how to eat
곧잘 quite
뜯어먹곤 한다 to bite off
아랑곳 않고 paying no attention
창살에 부딪치다 to bump into the
grill
기를 쓰다 to do one's best
시간이 흐르면 as time passes
버릇들다 to be accustomed
보금자리 a nest
여기다 to consider
기습 sudden attack
눈부라림을 벗어나다 to avoid
glaring eyes
안전한 곳 a safe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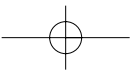


도리질하다 to shakes one's head
left and right
지치다 to get tired of
비집고 나오다 to squeeze out
안간힘을 쓰다 to try very hard
멈추질 않다 does not stop
호의호식 luxurious life
외톨이 a loner
편한 삶 a comfortable lifestyle
어울리다 to suit; to fit
나무 숲 등지 a nest in the woods
애타게 그림다 to long to see
anxiously
콧등이 시큰해져서 tingling with
sentiment
까만 점으로 작아지다 to become
as small as a black dot
크레디트 카드 credit card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be able
to do what you want
보장되다 to be guaranteed
몸만 건강하다면 if only you are
healthy

7. 기행문

방문하다 to visit

역사 history
설명하다 to explain
조금 a little
질리다 to get tired of
자랑하다 to be proud of
제대로 fairly
대우하다 to treat
닮다 to look alike
덮어놓고 without any reason
깎보다 to look down on
친절하게 friendly
대하다 to treat
모르다 to not know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seem to be
shy
반갑다 to be glad
엉뚱하게 unexpectedly
아침마다 every morning
다행이다 luckily
풍경 scenery
명물의 하나 one of the special
things
가관이다 a spectacle
난데없이 all of a sudden
쏟아져 나와 burst out
열두 시를 대기해서 wait for 12
h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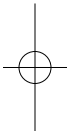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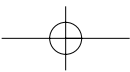
삼시간에 in a short time
조금 있으니까 there is some
호각을 불다 to blow a whistle
광장 plaza
주로 generally
다발 bundle
불과 no more than
파장 판에는 at closing
값이 떨어진다 the price falls
수송되다 to be transported
거치지 않고 without a stopover
화원 flower garden
원산지 the place of origin
한 아름씩 one armful
꽃 농사 flower gardening

8. 말의 값

자신을 잃다 loose one's confidence
충분히 sufficiently
발휘하다 to demonstrate
자기 자신에 대하여 about one's
self
실망하다 to be disappointed
비롯한 including
용기를 주다 to encourage
이런 저런 this and that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Failure is
the key to success
말의 값 value of word
막연하다 to be vague
질문 question
구체적으로 concretely
천 냥 빚 a debt of 1,000 ryang
(measure of money)
갚다 to pay back
경우 occasion
굉장히 very
도대체 at any rate
옹변 speech
침묵 silence
거침없이 flawlessly
겨우 barely
이해하다 to understand
옳은 해석 correct interpretation
같은 말이라도 even though it is
the same word
상대방 partner
상황 situation
그까짓 것 just
행복의 순서 order of happiness
원인을 분석하다 analyze the cause
효과적인 effective





9. 시조를 음미한다

방금 just now
시조 Korean short poems
내용 contents
너무 too
천천히 slowly
서두르다 to hurry
답답하다 to be stifled
아까 just before
흥을 보다 to find fault with
빨리 quickly
줄(행) a line
난쟁이 dwarf
당연하다 to be definite
때문에 because
귀찮다 to be bothersome
시끄럽다 to be loud
함부로 carelessly
사과하다 to apologize
까마귀 crow
백로 a white heron
겉 outside
속 inside
한 번 one time
외우다 to memorize
비웃다 to laugh 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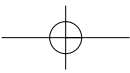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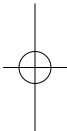
오히려 on the contrary
맑다 to be clear
시커멓다 dark
달랐던 것 같다 to seem different
따로 separately
어떨 때는 sometimes
항상 alw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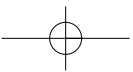
10. 올바른 한국어

제(저의) my
사투리 dialect
친근감 friendliness
일체감 unitedness
가령 for example
각기 each
이야기를 주고받다 to talk with
each other
통하다 to communicate
섞이다 to mixed
말씨 accent
아무래도 still
서먹한 uneasy; unfamiliar
올바른 correct
표준어 standard language
화합 harmony
순화된 refined; purified

국민 citizens
정서 순화 emotional refinement
대체로 generally
수도 capital
삼다 to take
까닭 reason
정치 politics
경제 economics
문화 culture
교육 education
교통 transportation
등 etc.
중심지 central area
보급 spread
갈고 닦다 used and refined
세련된 sophisticated
뭉쳐 together
답게 like
모래 sand
어른 adult
고추 red pepper
구별 distinction
사잇소리 현상 phenomena of
voiceless sounds between regular
sounds
잘못 발음하다 to pronounce
incorrectly

긴 소리 long sound
짧은 소리 short sound
예사소리 common sound
된소리 hard sound
옳게 correctly
전달 delivery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to not
turn out as planned
잔돈 change (money)
무덥다 very hot
짓밟다 to stamp down
명령 command
생명 life
성질 temperament
여성 female
첫머리 introduction
단일 민족 homogeneous ethnic
group
문화 민족 civilized people
뻔했던 almost
깊이 deeply
전통 traditions
계승하다 to maintain
찌꺼기 leftover
서구 western hemisphere
마구 carelessly
삼가다 to restrain





품위 dignity
숨을 쉬다 to breath
섞다 to mix
갈아주다 to change
일상 생활 everyday life
선조 ancestors
슬기로움 wisdom
깨달아도 even though I realize
덕(~의 덕) benefit
담다 to put
옹기 earthenwares
붙어 있다 be pasted to
큰댁 the house of the head family
물을 길다 to fetch water
나르다 to carry
부엌 kitchen
귀퉁이 a corner
감탄하다 to be amaz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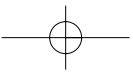
11. 조상들의 지혜

뜰 field
질그릇 earthenware
조선 시대 말기 end of the Choseon
Dynasty
항아리 = 독 jar
우산꽃이 umbrella stand

이사 move
수효 number
줄어들다 to decrease
장독대 place where large crocks
are stored outside
발효 음식 fermented food
김치 kimchi
된장 soy bean paste
고추장 red pepper sauce
젓갈 pickled fish
발달시키다 to develop
기억나다 to remember
수궁 accepting
지나가다 to pass
짓궂다 naughty
발명심 inventiveness
토장이 earthenware maker
마누라(아내) wife
물을 갈아 주다 to change the 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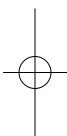
12. 실용문 세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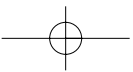
즐겁다 to enjoy
대부분 almost all
유익하다 beneficial
가깝다 to be close
깊은 우정 close friendship



지속되다 to maintain
전화 번호 phone number
혹시 by any chance
결석 absence
토론 debate
정보 information
교환하다 to exchange
가능하다 to be possible
날로 oven
발전하다 to develop
국제적 지위 international place
몇 개 a few
훌륭하다 to be great and
distinguished
인재 talented man
보람된 worthy
능력 개발 development of ability
제출하다 to submit
약정서 contract
다짐하다 to promise
초대장 invitation
동창 alumni
우정 friendship
모교 alma mater
발전 development
마련하다 to prepare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매번 every time
뜨거운 모임 heated meeting
감사 appreciation
맞이하다 to meet
환담하다 to chat
마음을 모으다 gather one's mind
(thoughts)
또한 also
지난 일 년 the past one year
성원 support
무척 very
꼭 definitely
빠짐없이 without missing anything
참석하다 to participate
이루다 to make
회비 membership fee
참가 신청서 registration form
참가자 participants
발행하다 to issue
교내 inside the school
본교 this school
체육실 gym
운동복 gym uniform
운동화 sneakers
전원 everybody
녹음기 tape recorder
 짝짓기 pairing





눈 가리다 to cover one's eyes

깃대 flag pole

유치반 kindergarten

공 ball

풍선 balloon

줄다리기 tug-of-war

피구 dodge ball

대표 representative

적극 aggressive

참여하다 to participate

13. 한국의 자랑

법으로 정하다 to make into a law

자연스럽게 naturally

국화 national flower

굳어지다 to become arranged

유명하다 to be famous

식물원 botanical garden

규모 size

방문하다 to visit

내용이 충실하다 to be faithful to
the contents

세계적으로 손꼽히다 worldly
noted

본관 main building

여러 그루 several (trees)

호드리지게 피다 to bloom

splendidly

광경 scene

기억에서 지울 수 없다. cannot
erase from one's memory

인상 깊다 to be deeply impressed

직원 clerk

더구나 moreover

꽃잎 바탕 on petals

깊숙한 화심 the center of a
flower

야무지다 to be firm or solid

단심 무궁화 single hearted Rose
of Sharon

배경 background

우단을 깔아 놓은 듯 as if it were
velvet carpet

다듬다 to take care of

잘 가꾸다 well taken care of

아침나절 in the morning

만발한 모습 a bloomed appearance

버젓하게 respectfully

심장부 heart

찬란하다 to be brilliant

우리 나라 our country

환상인 양 as if an illusion

흐뭇한 심정 pleased

고려 시대 Koryo Dynasty

나라를 세우다 to found a country

망하다 to fall into ruin

가리켜 이른 말이다 it is said that

지은 솜씨 workmanship

묘하다 be exquisite

빛깔로 말하면 If I talk about the
colors

감빛 brown

무쇠빛 cast iron color

사기 ceramic

속바탕 original layer

유리 칠을 씌웠다 covered with
glass paint

은은히 to shine through

비쳐 나오다 to see through

비 갠 뒤 to be clear after the
rain stops

물결 같이 to look like waves

고상하다 to be noble

우아하다 to be graceful

차관 a tea kettle

사발 a bowl

연적 a container for ink-stone
water

소합 a small container

대순 bamboo

봉황 a Chinese phoenix

구름이 떠돌다 clouds are floating

고기가 뛰다 fish that are jumping

기막힌 솜씨 breath-taking skills

가장 유명한 것 the most famous
thing

실지로 in reality

14. 여러 가지 말하기

화제 topic

사전지식 background knowledge

갖추다 to have

시간적 여유 enough time

별 문제 없다 there is no real
problem

즉석 instant

평소 during ordinary times

지식 유무 known or unknown

예기치 않은 unexp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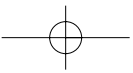
대비하다 to prep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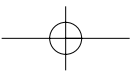
습득하다 to obtain

핵심을 파악하다 to grasp the
main idea

이야기의 흐름 flow of conversation

요점을 벗어나다 to diverge from
the topic





흥미를 느끼다 to feel excited
관심을 가지다 to be interested in
명심하다 to keep in mind
말로써 orally
전달하다 to communicate
성격이 다르다 to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시각적 인상 visual impression
비교적 comparatively
선명하다 to be clear
요약 summary
파악하다 to grasp
체계적 systematic
정리하다 to organize
검토하다 to review
뜻하지 않게 surprisingly
당황하다 to be embarrassed
고려하다 to consider
적절하다 appropriate
메모를 하다 to take notes
즉흥적 impulsive
훨씬 very
재치를 믿다 to trust one's wit
습관을 기르다 to make a habit
직접 겪다 to experience in person
사실대로 truthfully
상황을 판단하다 judging the

circumstances
결론을 내리다 to make a decision
개인적인 느낌 personal feelings
진행 과정 procedure
제 3 자 third person
개입하다 to be involved in
와전될 염려 worry about misinter-pretation
목격한 일 witnessed matter

15. 전화 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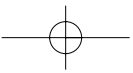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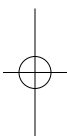
아 다르고 어 다르다 even small things makes a difference
간결하다 to be simple
친절하다 to be friendly
평화롭다 to be peaceful
상대방 partner
의사 소통 communication
감정이 좌우되다 to be emotionally affected
자기를 밝히다 to state one's identity
전화 예절 telephone manner
기본 basic
수화기 receiver
벨이 울리다 the telephone (bell) is rin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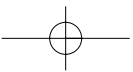
차이가 있다 to have a difference
직장 place of work
전해 드리다 to pass the message on
정중하다 to be earnest
무의식적으로 unconsciously
응답하다 to respond
바람직하다 to be desirable
어떠한 관계 what kind of relationship
통화하다 to talk to
죄송하다 to be sorry
전화를 끊다 to hang up the phone
모범답 a model answer
지역 이름 name of a location
바꾸다 to change (to transfer the phone to someone)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Please take a message.

16.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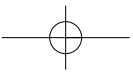
경매장 an auction hall
보도 report
문외한 outsider
흥분을 일으키다 to arouse excitement

족하다 to be enough
소재 subject
한국 미술사 Korean art history
평가 evaluation
언급하다 not to comment on
이 무렵 during this time
대견한 느낌 feeling of satisfaction
조간 morning newspaper
백과 사전 encyclopedia
활동 연대 chronology of activities
도항 연대 chronology of arrival
엇비슷하다 to be similar
임진왜란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14th century
포로 prisoner
수사 a monk
후손 descendants
현지 탐방기 on-the-spot report of activities
반대로 on the contrary
역시 as I expected
선교사 missionary
남짓 more than
접촉 contact
전후 before and after
거물 a big figure
누비고 다니다 to weave one's





way through	광대뼈	cheek bone	
문제의 그림	a painting being	미간이 넓다	space between the
questioned		eyebrows is wide	
무관하다	to not be related	과연	indeed
잇달다	one after the other	그럴 듯하다	it appears to be
주인공	hero	추측	guess
종교사	religious history	걸맞다	to fit
전문가	professional; expert	풍기다	impress
가능성을 지적하다	to point out	격이 있다	to have decency
the possibility		천덕꾸러기	a despised person
배제하다	to rule	도공	potters
복식사	history of costume	대접을 받다	to treated well
(clothing)		종합하다	to summarize
증언하다	to witness	윤곽이 잡히다	to get the outline
평상시	in ordinary days	of	
정장	[formal] wear	증거	proof; evidence
이의	opinion	덧붙이자면	in addition to
미술 평론	art criticism		



● 듣기 훈련을 위한 자료 ●

이 책 제 1 과부터 제 16 과까지의 본문과 관련이 있는 듣기 훈련 자료는 성격상 문제와 제재를 따로 묶어 제공합니다.

다음 몇 가지 듣기 훈련 방법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청취력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 ① 교사나 학생이 직접 읽어 준다.
- ② 미리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였다가 학생들에게 들려 준다.
- ③ 미리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였다가 학생들에게 들려 준다.
- ④ 문제지만을 학생들에게 복사하여 나누어 주거나, 문제까지도 잘 듣고 답을 쓰도록 한다.

— 읽어 줄 제재는 171쪽 이후에 모았습니다. —

● 답안지 모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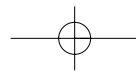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1. 생활과 수필

[문제 1] 이 글에서 나온 두 직업은?

- ① 소설가, 화가
- ② 독자, 수필가
- ③ 소설가, 독자
- ④ 소설가, 수필가

[문제 2] 영희는 왜 수필가가 되기를 원하나요?

수필은 _____소설이 주는 만큼의 _____ 주기 때문이다.



2. 판단하며 듣고 말하기

[문제 1] ‘오염되었다’는 무슨 뜻입니까?

[문제 2] 위의 회화와 맞는 내용은?

- ① 더러운 물 → 더러운 물고기
- ② 중요한 모임 → 더러운 물고기
- ③ 더러운 물 → 중요한 모임
- ④ 더러운 물 → 중요한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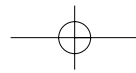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3. 우리 속의 나

[문제 1] 엄마까치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문제 2] 엄마까치가 먹이를 구하러 갔을 때, 아기까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문제 3] 아기까치가 왜 땅으로 떨어졌습니까?

- ① 엄마까치가 아기까치들을 낳아서
- ② 엄마까치가 먹이를 찾으러 가서
- ③ 큰 뱀이 아기까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 ④ 정답 없음



4. 편 지

[문제 1] 유리는 왜 고민이 많았습니까?

- ① 네가 나를 도와 줘서
- ② 미현이가 멀리 있어서
- ③ 성적이 떨어져서
- ④ 여름 방학에 미현이를 만나서

[문제 2] 유리는 언제 미현이를 만나러 갈까요?

5. 한국의 김치

[문제 1] 왜 김치를 식탁에 내 놓지 않았나요?

- ① 먹지 않을까 봐
- ② 잊어버리고
- ③ 냄새날까 봐
- ④ 식탁에 자리가 없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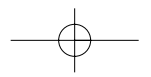
[문제 2] 누가 김치 냄새가 날까 봐 걱정하였나요?

- ① Mrs. 김
- ② 스티브 어머니
- ③ 스티브
- ④ Mrs. 김의 아들

[문제 3] 무슨 김치가 맛있게 익었나요?

- ① 부추김치
- ② 배추김치
- ③ 열무김치
- ④ 나박김치





6. 자유라는 것

[문제 1] 이 새는 어디에서 풀려 나왔나요?

- ① 하늘 ② 자유 ③ 새장 ④ 안전

[문제 2] 이 새는 무엇을 가지게 되어서 행복한가요?

- ① 먹이 ② 자유 ③ 생명 ④ 하늘

[문제 3] 이 새는 무엇을 자기 스스로 구해야 하나요?

- ① 안전 ② 새장 ③ 자유 ④ 먹이

7. 기행문

[문제 1] 출발지와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경주 ③ 경주 ④ 서울

[문제 2] 이 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얼마의 시간이 있습니까?

- ① 30분 ② 1시간 ③ 20분 ④ 3시간

[문제 3] 몇 시에 경주에 도착합니까?

- ① 오전 9시 ② 오전 3시 ③ 오후 3시 ④ 오후 5시

8. 말의 값

[문제 1] 무엇에도 무게가 있다고 합니까?

[문제 2] 남자의 한 마디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 ① 백 금 ② 천 금
③ 만 금 ④ 천 파운드

[문제 3] 여자의 한 마디의 무게는 얼마라고 하였습니다?

9. 시조를 음미한다

[문제 1] 형은 무엇을 배우기가 싫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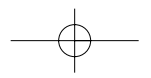
[문제 2] 무엇을 하는 동안에 세월이 흘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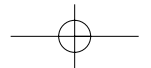
[문제 3] 이 시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10. 올바른 한국어

[문제 1] 어제 성준이는 무엇이 불편하였습니까?

[문제 2] 하늘로 올라간 고추잠자리들이 만든 글씨는 무엇인가요?





[문제 3] 성준의 꿈에 대한 민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① 꿈이 시시하고 이상하다.
- ② 꿈에 수백 명의 잠자리가 따라 왔다.
- ③ 잠자리가 불편했다.
- ④ 고추잠자리로 변했다.

11. 조상들의 지혜

[문제 1] 옛날에 한국에서는 어떤 그릇을 썼습니까?

[문제 2] 할아버지께서 전주에서 사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3] 대화에 나오는 새의 이름은?

[문제 4] 한국 조상들은 왜 학을 좋아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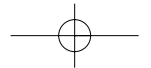
12. 실용문 세 편

[문제 1] 두 사람은 어떤 모임에 대해 말했습니까?

- ① dinner party
- ② election meeting
- ③ alumini meeting
- ④ breakfast party

[문제 2] 영민은 저녁 8시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 ① 친구와 만남
- ② 부모님과의 식사
- ③ 사촌 형님과의 의논
- ④ 정답 없음



[문제 3] 영민이가 동창회에 11시까지 오면, 파티가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을 즐길 수 있을까요?

13. 한국의 자랑

[문제 1] 무엇이 한국식 난방 장치입니까?

[문제 2] 온돌방은 어디가 따뜻합니까?

- ① 방 벽
- ② 천장
- ③ 방바닥
- ④ 마룻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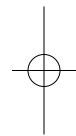
[문제 3] 누가 온돌방에서 쉬고 싶어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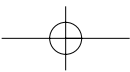
14. 여러 가지 말하기

[문제 1] 누가 졸업을 하였습니까?

[문제 2] 형은 어느 학교를 졸업하였습니까?

[문제 3] 형에게 졸업날을 어떻게 지내라고 하였습니까?





15. 전화 예절

[문제 1] 철이는 어디에서 전화를 걸었습니까?

[문제 2] 할머니는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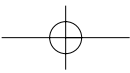
[문제 3] 여름에는 미국과 한국의 시차가 몇 시간입니까?

16.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

[문제 1] 루벤스의 그림 제목은 무엇입니까?

[문제 2] 동생은 그림의 남자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문제 3] 지금 그 남자의 후손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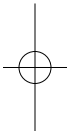
● 듣기 훈련을 위한 글 모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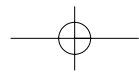
1. 생활과 수필

영희 : 나는 이 다음에 수필가가 되고 싶어요.
엄마 : 저번에는 유명한 소설가가 되겠다더니?
영희 : 소설은 긴 글을 써서 독자에게 감동을 주지만, 수필은 짧아도 소설이 주는 만큼의 감동을 주잖아요.
엄마 : 그래서 수필가가 되려고 하는구나.
영희 : 네, 제가 쓴 수필을 읽어 보실래요?

2. 판단하며 듣고 말하기

진영 : 어제는 왜 그렇게 늦게 왔어, 언니?
효희 : 응, 친구들과 중요한 모임이 있었어.
진영 : 무슨 모임?
효희 : 환경 클럽. 맨하탄 주변의 강물이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논하는 모임이야.
진영 : ‘오염되었다’가 무슨 뜻이야?
효희 : 물이 더러워졌다는 뜻이야.
진영 : 그것이 왜 문제야?
효희 : 우리가 사는 주변의 물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더러운 물을 마시게 되잖아. 그리고 그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영향을 입잖아. 우리들이 그 물 고기를 먹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길 거야.





3. 우리 속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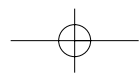
어떤 농부의 집에 엄마까치가 날아 와 까치집을 만들고 아기까치들을 낳았어요. 어느 날 엄마까치가 먹이를 찾으러 갔어요. 아기까치들이 재미있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뱀이 나타났어요. 그 큰 뱀은 아기까치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뱀을 피하려던 아기까치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4. 편 지

사랑하는 친구 미현에게
미현아, 그 동안 고마웠어. 내가 성적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을 때, 네가 도와줘서 큰 힘이 되었어. 멀리 있는 네가 가까이 있는 친구들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내년 여름 방학엔 널 만나러 갈게. 그 때까지 잘 지내.
1997년 9월 15일
뉴욕에서 유리가

5. 한국의 김치

스티브 : Mrs. 김, 김치는 없습니까?
Mrs. 김 : 김치 말이냐? 우리 아들이 김치 냄새날까 봐 걱정을 해서 식탁에 내놓지 않았는데…….
스티브 : Mrs. 김, 김치를 좀 주십시오. 전 김치를 좋아합니다.
Mrs. 김 : 그래? 배추김치가 맛있게 익었으니 맛을 봐라.



6. 자유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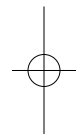
새 : 나는 드디어 자유가 되었다. 새장에서 풀려 나와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게 되었다.
들리는 소리 : 하지만 지금부터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하지요. 생명의 안전도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하지요.
새 :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를 가지고 싶었어요. 나는 행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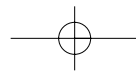
7. 기행문

안내원 :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할 이영미입니다.
이 차는 오전 9시 서울을 출발하여 오후 3시 경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가는 도중 휴식 시간이 없으므로, 볼 일이 있으신 분은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20분의 시간이 있으므로 천천히 내리세요. 이 차의 번호는 34567번입니다.
감사합니다.

8. 말의 값

A : 말에도 무게가 있다고 하더라.
B : 그럼, 말의 무게는 몇 파운드라고 그래?
A : 남자의 말 한 마디의 무게는 천 금이라고 하던데.
B : 그럼, 여자의 말 한 마디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A : 글썄? 모르겠는데.





9. 시조를 음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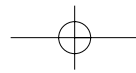
한국어 배우기를 나는야 싫다고서
게으름 피우다가 세월만 흘러 보내
동생의 놀림을 받는 바보 형이 되었구나.

10. 올바른 한국어

성준 : 어제 잠자리가 불편해서 내리 꿈만 꾸었어.
민희 : 무슨 꿈?
성준 : 내 꿈에 수백 마리의 고추잠자리가 나타나서 날 따라오는 거야.
민희 : 그래서?
성준 : 갑자기 그 고추잠자리들이 하늘로 올라갔어. 그리고는 파란 하늘에 빨강
게 ‘안녕’이라고 글씨를 쓰지 않겠니.
민희 : 꿈이 시시하고 이상하다.

11. 조상들의 지혜

영수 : 한국 사람들은 항상 질그릇을 썼나요?
아빠 : 그래. 옛날에는 플라스틱이 없었다. 그래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썼지.
영수 : 여기 이 꽃병도 사기그릇이죠?
아빠 : 그렇지. 그 꽃병은 할아버지께서 전주에 가서서 사 오셨단다.
영수 : 여기에 있는 새의 이름이 뭐예요?
아빠 : 그건 학이다. 우리 조상들은 학을 좋아하셨다.
영수 : 왜요?
아빠 : 글썄, 한국에 학이 많았고, 새의 모양이 좋고, 오래 살기 때문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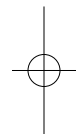


12. 실용문 세 편

정희 : 영민아, 너 다음 주에 동창회에 갈 거니?
영민 : 무슨 요일이야?
정희 : 토요일.
영민 : 몇 시에?
정희 :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야.
영민 : 난 그날 저녁 8시에 약속이 있어.
정희 : 그럼 넌 못 가겠구나.
영민 : 파티가 시작되는 7시까지는 못 가지만, 아마 11시까지는 갈 수 있을 거
야.
정희 : 널 거기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13. 한국의 자랑

A : 너 한국 온돌방을 알고 있지?
B : 물론이지! 온돌은 한국식 난방 장치인 걸.
A : 온돌방은 어디가 따뜻하더냐?
B : 방바닥이 따뜻했지.
A :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온돌방에서 폭 쉬고 싶다고 하셔.



14. 여러 가지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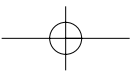
형, 대학 졸업을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형은 어엿한 학사님입니다.
언제나 우리 형제의 앞장을 서는 형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형의 날입니다. 즐겁게 지내십시오.
동 생

15. 전화 예절

손자 : 여보세요.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 : 아니, 이 새벽에 누가 전화를 거나?
손자 : 미국에 있는 철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 : 뭐, 철이라고? 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손자 : 아니에요. 그냥 전화 걸고 싶었어요.
할머니 : 공연히 놀랐구나! 철이야. 여름에는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13시간인 것을 기억해라.

16. 루벤스의 ‘한복을 입은 남자’

누나 : 이것이 바로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의 그림이다. 어떠냐?
동생 : 참 멋쟁이네요! 얼굴에 자신감이 있고, 태도가 늠름해요. 또 옛날 남자 한복이 보기 좋아요.
누나 : 나는 이 남자의 후손들을 만나보고 싶어졌어. 그 후손들이 지금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



연구·심의진	김선익 (국제교육진흥원) 김지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노명완 (고려대학교) 류덕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박영목 (홍익대학교) 신난수 (서울 신서중학교) 장애자 (서울 재동초등학교) 한연수 (국제교육진흥원) 허만길 (서울 강신중학교) 허천행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홍석화 (국제교육진흥원)
개편진	손혜숙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부 한국학교/한국학교연합회) 이영태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부 한국학교) 함혜란 (미국 로드아일랜드) 허병렬 (미국 동부 뉴욕 한국학교)
번역진	김정혜 (미국 남가주 한국학원) 이광자 (미국 워싱턴 통합학교) 이두철 (상명대학교)
삼화진	김요셉 (미국 주 뉴욕 중앙일보) 이대일 (명지대학교)

재외동포용 고급 (영어권) 한국어 1 (하)

1997년 12월 1일 초판 발행
2006년 12월 30일 발 행

저작권자 대 한 민 국
교 육 인 적 자 원 부
국 제 교 육 진 흥 원
인 쇄 인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